인성교육과 한자·한문공부를 위한

글 **이종란** · 그림 **임다리**

율곡연구원

발간사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는 것과 형제자매가 화목하며 친구를 믿는 것과 그리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내 몸과 마음을 올바르게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옛 조상들은 이런 것들을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공부로 여겼습니다. 글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인간이 되는 공부였던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조선 중기에 정치가와 학자로서 활약했던 율곡(栗谷) 이이(李珥) 선생도 처음 학문을 시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격몽요결(擊蒙要訣)』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거기서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학문이 아니면 사람이 될 수 없으니, 이른바 학문이란 이상하고 별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하여 이렇게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부부로서 형제로서 친구로서 그리고 젊은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학문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먼저 내 몸이 바로 서야 가족이나 이웃 그리고 사회로부터 환영받고 성공할 수 있는 기초가 다져진다고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학생들은 지나치게 입시공부만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매달리다보니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앞뒤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본 사업단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지원을 받아 이 교재를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격몽요결』을 중심으로 우리 조상들이 어린이 교육을 위해 사용했던 여러 책에서 오늘날까지도 변치 않은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풀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실천한다면 올바르게 자라는 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약간의 한자와 한문의 기초를 다루어 교과학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 교재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바르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한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없겠습니다. 모두 훌륭하게 성장하여 개인 각자의 발전은 물론 사회와 나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기를 빕니다.

2015년 11월

율곡학 콘텐츠 개발 및 사회적·국제적 확산 사업단장 최영진

머리말

이 책은 옛날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공부의 기초교재로 많이 읽었던 『계몽편』과 『동몽선습』과 『사자소학』과 『격몽요결』 가운데서 오늘날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을 골라서 『격몽요결』을 중심으로 다시 썼어요.

옛날과 오늘날은 시간적으로 거리가 멀고 또 시대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옛 조상들이 하던 일을 그대로 따르거나 지킬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옛것이 다 쓸모없는 케케묵은 골동품 같은 것은 결코 아니에요. 거기에는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에도 통하는 삶의 지혜와 도리가 들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요즘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보다 당장 시험에 필요한 공부에만 열중해요. 경쟁이 심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는 하지만, 우리 속담에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까?'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급해도 살아가는 지혜와 도리를 배우지 못하면, 훗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어렵지만 미숙한 행동 때문에 힘들고 곤란하여 후회하는 일이 꼭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은 그런 지혜와 도리를 알려주려고 썼어요. 물론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 바른 인성과 최소한의 기초 한자와 한문을 익히도록 배려하였어요.

우선 바른 인성을 위해서는 교과를 통합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제시하였고, 한자는 읽기와 한자어로 이루어진 낱말 익히기 위주로 하였으며, 한문은 간단한 문장을 익히게 했어요. 그리고 앞의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관련된 옛 이야기와 해설을 덧붙였지요. 물론 학교공부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쪼록 이 교재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등장하는 내용을 머릿속이 아니라 생활에서 실천하면서 익힌다면, 즐거움도 커지고 공부의 부담이 전혀 없을 것이라 믿어요. 꼭 성공하기를 빕니다.

2015년 11월

이종란 씀

첫째 마당 자연과 인간

1. 하늘 땅 사람 ---------- 8
2. 낮과 밤 ---------- 14
3. 수 ---------- 19
4. 네 계절 ---------- 24
5. 산과 강 ---------- 30
6. 날씨 ---------- 36
7. 색깔 맛 소리 ---------- 42
8. 날짜와 시각 ---------- 47
9. 다섯 가지 물질 ---------- 52
10. 다섯 가지 도리 ---------- 58

둘째 마당 행복한 가정

1. 가족과 나 ---------- 67
2. 부모님과 나 ---------- 73
3. 형제와 나 ---------- 82
4. 남편과 아내 ---------- 88
5. 효도의 방법 ---------- 94
6. 내가 집안의 어른이라면 ---------- 101
7. 내 자식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 108

첫째 마당 살기 좋은 세상

1. 어른 공경 아이 사랑
2. 참다운 친구
3. 어른과 아이의 역할
4. 고장에서 사람 사귀기
5. 남이 나를 비방하면

둘째 마당 공부는 왜 하는가?

1. 공부를 하는 이유
2. 어떤 꿈을 가질까?
3. 자기를 이겨보자
4. 독서의 방법
5. 공부와 시험

셋째 마당 공부는 도리어 쉽다

1. 나쁜 습관을 고쳐 볼까?
2. 아홉 가지 용모
3. 아홉 가지 생각
4. 옷차림과 음식
5. 놀이도 공부다
6. 배움의 실천

첫째 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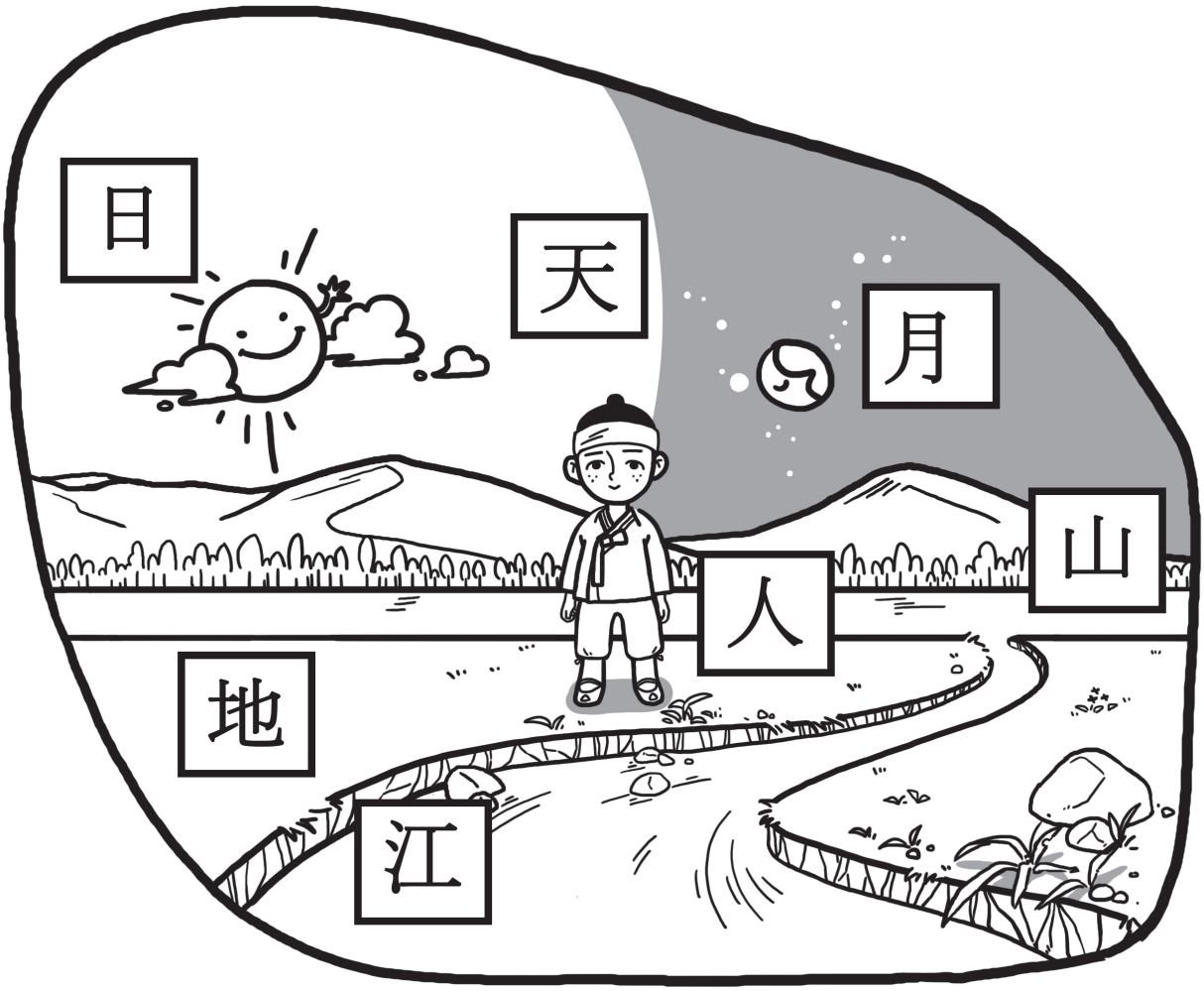
자연과 인간

1. 하늘 땅 사람
2. 낮과 밤
3. 수
4. 네 계절
5. 산과 강
6. 날씨
7. 색깔 맛 소리
8. 날짜와 시각
9. 다섯 가지 물질
10. 다섯 가지 도리

우리는 자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만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자연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알고 소중히 여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옛사람들도 이렇게 자연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옛사람들은 자연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아봅시다.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1. 하늘 땅 사람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에는 땅이 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고
만물*이 있으니
해와 달과 별은
하늘에 걸려 있고
江(강)과 바다와 山(산)은
땅이 싣고 있다. (『계몽편』「수편」)

*만물 : 동물과 식물을 비롯한 수많은 물건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본문 해설

밖에 나가 위로 올려다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하늘[天]이 보이지요? 하늘[天]에는 무엇이 있나요? 네. 비록 눈이 부시겠지만 해[日]가 보일 거예요. 낮인데도 해[日]가 안 보인다면 구름이 보이겠네요. 만약 밤이라면 깜깜한 하늘과 별이 보일 거고요, 어쩌면 달[月]도 보이겠네요. 높은 건물이 많은 도시라면 아마도 높은 건물에 막혀서 하늘[天]이 잘 안보일 수도 있겠어요.

자, 이번에는 아래로 내려다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시멘트 바닥만 보인다구요? 도시에 산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도시가 아니라면 흙과 흙에서 자라는 여러 가지 식물이 보일 거예요. 그 흙으로 이루어진 것을 땅[地]이라 부르지요.

그럼 이번에는 하늘[天]과 땅[地] 사이에 보이는 것을 말해 봐요. 나무·곡식·건물·사람·동물·자동차 등 온갖 것이 보이지요? 이 온갖 것을 통틀어 만물이라고 불러요. 옛사람들은 만물을 대표하는 것을 인간[人]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하늘[天]과 땅[地]과 인간[人]이 세상을 이루는 중요한 세 가지로 보았어요.

그런데 해[日]와 달[月]과 별은 하늘[天]에 걸려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것은 먼 옛날부터 옛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에 대한 모습이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 우주의 중심에는 움직이지 않는 네모난 땅[地]을 하늘[天]이 덮고 있다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땅[地]은 山(산)이나 江(강)이나 들판 같은 만물을 싣고 있고, 해와 달은 하늘에 걸려 있다고 여겼지요.

지금 보면 틀린 것이지만 아무튼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처음 배우는 교과서라 할 수 있는 『계몽편』이나 『천자문』에 우주에 관한 내용이 맨 처음 나오지요. 하늘인 天(천)과 땅인 地(지)가 그것이에요.

생각해 볼 문제

1. 앞의 본문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네 가지로 나누어 볼 때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 했나요? (　　) 속에 알맞은 말을 넣어 보세요.

하늘　　땅　　만물　　(　　)

2. 다음 〈보기〉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골라 적어 보세요.

〈보기〉 강, 해, 바다, 달, 산, 별

가. 하늘에 있는 것 (　　)

나. 땅에 있는 것 (　　)

3. 왜 옛날 사람들은 해와 달이 하늘에 걸려있고, 바다와 강과 산은 땅이 싣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각자 그 이유를 말해 보세요.

4.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만물 가운데 무엇이 가장 귀한지 자기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가. 귀한 것 :

나. 그 이유 :

5. 이 글에서 말하는 것 외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각각 5가지씩 생각나는 대로 더 적어 보시오.

가. 하늘에 있는 것 :

나. 땅에 있는 것 :

한자 익히기

1. 앞에서 등장한 낱말에 해당하는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하늘	땅	사람	해	달	강	산
한자	天	地	人	日	月	江	山
음	천	지	인	일	월	강	산

2. 위에 나오는 한자를 합쳐 낱말을 만들었어요. 서로 관계되는 것끼리 줄로 이어 보세요.

(1) 하늘과 땅 ● ● 日月(일월)

(2) 강과 산 ● ● 天地(천지)

(3) 해와 달 ● ● 江山(강산)

3. 다음 설명에 맞는 한자를 □속에 써 보시오.

가. 매일 매일 기록하는 글 : □記(일기)

나. 사람의 힘 : □力(인력)

4. 앞의 『계몽편』의 내용을 다시 써 보았어요. ( )속에 알맞은 한자의 뜻을 써 넣어 보세요.

위에는 天( )이 있고

아래에는 地( )이 있다.

天( )과 地( ) 사이에

人( )이 있고

만물이 있으니

日( )와 月( )과 별은

天( )에 걸려 있고

江( )과 바다와 山( )은

地( )이 싣고 있다.

관련된 이야기

하늘 천 따 지

옛날 어떤 소년이 서당 훈장님께 공부를 배우러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첫날부터 하늘 天자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도 소년은 아무 불평 없이 하나를 가르치면 열 가지를 깨우치며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공부한 내용은 天에 해당하는 것이었지요. 이렇게 10년 동안 공부를 했건만 훈장님은 그 소년을 놓아주지 않고 서당에 붙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소년 스스로도 하늘 天에 관계된 내용만 알아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서당에 계속 다니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훈장님이 땅 地에 관계된 내용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시 10년이 지나자 소년은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과거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과거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을까요? 비록 天과 地에 관계된 내용만 공부했지만, 사실 세상의 일이란 다 따지고 보면 天地와 관계된 일이 아니겠어요?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는 것도 알고 보면 이렇게 관련시켜서 아는 일이지요.

여러분도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이렇게 다른 사물과 관계 짓는 습관을 갖는다면 훨씬 공부가 재미있을 것이라 믿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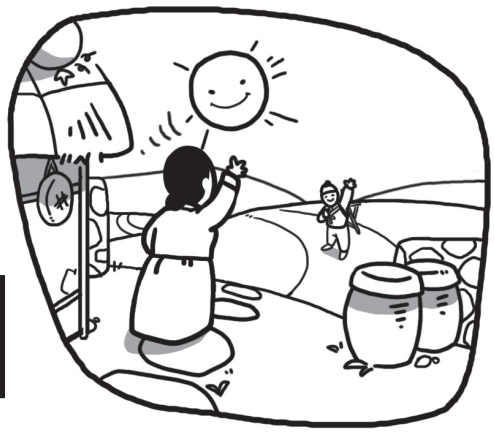
관련 인성 가치 **책임**

2. 낮과 밤

해는 東(동)쪽에서 나와
西(서)쪽으로 들어간다.
해가 나오면 낮이 되고
해가 들어가면 밤이 되니
밤에는 달과 별이 나타난다. (『계몽편』「천편」)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東



西

晝

夜

본문 해설

"해는 東(동)쪽에서 나와 西(서)쪽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우리가 맑은 날 아침과 저녁에 볼 수 있는 일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리고 해 뜨는 방향이 東(동)쪽이고 해 지는 방향이 西(서)쪽이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東(동)쪽과 西(서)쪽은 어떻게 정했나요? 한자 東(동)쪽을 뜻하는 東이란 글자를 보면, 나무를 뜻하는 木에 해를 뜻하는 日이 겹쳐져 있지요? 아마도 해가 뜨는 쪽을 東(동)쪽이라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 반대는 西(서)쪽이고요. 이미 東(동)쪽과 西(서)쪽이 정해졌다면 南(남)쪽과 北(북)쪽은 자동적으로 정해지지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해가 나오고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나오나요? 사막이나 넓은 들판에서 보면 땅 밑에서 나오고 땅 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일 거구요, 만약 넓은 바다에서 본다면 물밑에서 나와 물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일 거예요.

과학지식을 잘 아는 우리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지만, 옛사람들은 우리와 달리 실제로 해나 달이 땅이나 물밑에서 나와 하늘에 떠서 西(서)쪽의 그곳으로 들어간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해가 나오면 낮이 되고 해가 들어가면 밤이 되니, 밤에는 달과 별이 나타난다."

라는 말도 실제로 우리가 누구나 관찰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밤[夜]과 낮[晝]은 해가 있거나 없는 것에 따라 정해진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보면 요즘 어린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거라 믿어요. 밤[夜]이 되고 낮[晝]이 되는 것은 지구가 돌기(자전) 때문에 해가 비치는 쪽이 낮[晝]이고 해가 비치지 않는 그늘이 밤[夜]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것을 몰랐던 옛날에는 땅은 우주 가운데 멈춰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과 함께 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생각해 볼 문제

1. 앞의 본문에서 낮과 밤이 되는 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나요?

   (　　)

2. 다음 밑줄 친 낱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보세요.

   해는 동쪽에서 나와 → [　　]

   서쪽으로 들어간다 → [　　]

3. 서로 관계되는 것끼리 줄로 이어 보세요.

(1) 동쪽	●		● 달, 별
(2) 서쪽	●		● 해가 뜬다
(3) 밤	●		● 해가 진다

4. 반대되는 방향을 서로 짝 지어 (　) 속에 써 보시오.

   가. (　　) ↔ 서쪽

   나. 남쪽 ↔ (　　)

   다. 위 ↔ (　　)

   라. (　　) ↔ 뒤

5. 시계가 없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시각을 알았을까요? 각자 해와 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아요. 말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한자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낮	밤
한자	東	西	南	北	晝	夜
음	동	서	남	북	주	야

2. 다음에 관계되는 낱말의 번호를 아래 〈보기〉에서 찾아 써 보세요.

〈보기〉 ① 南北(남북) ② 晝夜(주야) ③ 東西(동서) ④ 日出(일출)

동쪽과 서쪽 ( )

남쪽과 북쪽 ( )

낮과 밤 ( )

3. 다음의 한자의 뜻과 음을 써 보아요.

한자	뜻	음
南		
晝		
北		
夜		

4. 앞의 『계몽편』의 내용을 다시 써 보았어요. ( )속에 알맞은 한자의 뜻을 써 넣어 보세요.

日( )는 東( )에서 나와
西( )으로 들어간다.
日( )가 나오면 晝( )이 되고
日( )가 들어가면 夜( )이 되니
夜( )에는 月( )과 별이 나타난다.

관련된 옛 이야기

일곱 개의 해

몽골의 옛 이야기에요. 오랜 옛날에 일곱 개의 해가 하늘에 떠 낮[晝]만 있어 땅은 말라서 먼지만 날리고 강물도 말라붙어 사람과 동물들은 더위에 시달렸어요.

그 때 어느 지방에 활 잘 쏘는 궁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에게 하늘의 해를 쏘아 없애달라고 부탁을 하였어요. 그러자 그는

"내가 일곱 개의 해를 없애지 못하면 내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고 물도 마시지 않고 마른 풀도 먹지 않는 타르박(다람쥐처럼 생긴 동물. 일명 마못)이 되어 어두운 땅굴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東쪽에서 西쪽으로 줄지어 있던 해를 東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쏘았어요. 여섯 개의 해를 없애고 일곱 번째 해를 쏘려는데 마침 그 때 제비가 지나가면서 시야를 가렸기 때문에 화살이 빗나가고 말았어요. 그래도 그 화살이 제비꼬리를 맞혔기 때문에 꼬리가 그만 두 갈래로 찢어지고 말았지요.

마지막 남은 해는 궁수가 무서워 그날부터 西쪽 산 너머로 얼굴을 붉히며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밤[夜]이 생기게 되었지요.

궁수는 자신과의 약속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고 물을 마시지 않고 건초를 먹지 않는 타르박이 되어 어두운 땅굴 속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타르박의 발가락이 네 개인 까닭은 궁수가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렸기 때문이에요. 타르박은 아침과 저녁에 구멍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궁수가 자신이 타르박이 된 사실을 잊어버리고 태양을 쏘겠다고 나오는 것이라고 해요. 또 이 세상에 남은 하나의 해는 궁수를 두려워하여 산 너머로 사라지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이 번갈아 돌아온다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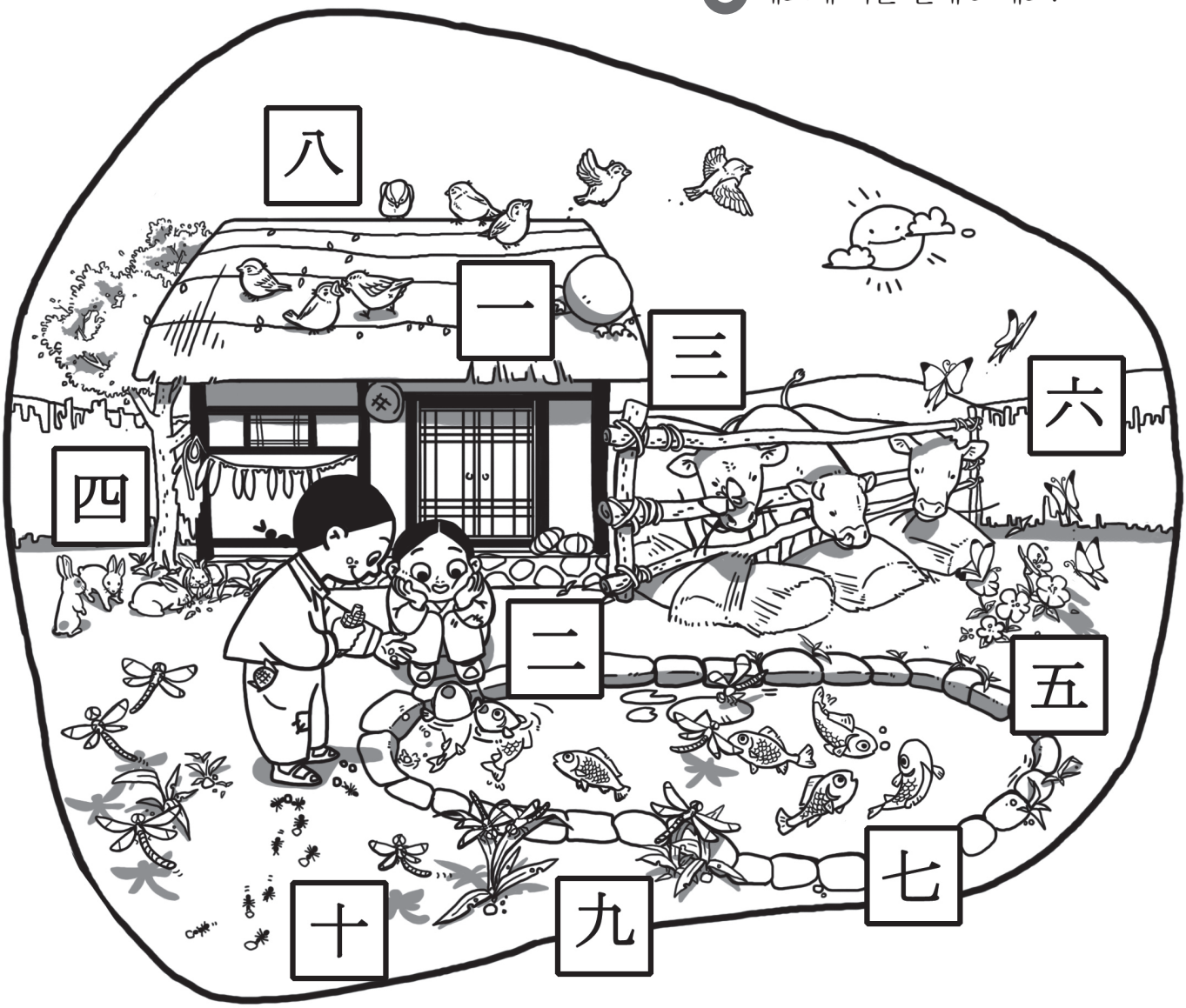
관련 인성 가치	소통

3. 수

一(일), 二(이), 三(삼), 四(사), 五(오), 六(육), 七(칠), 八(팔), 九(구), 十(십), 百(백), 千(천), 萬(만), 億(억)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물건의 수를 센다.

(『계몽편』「수편」)

○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본문 해설

여러분들은 하나, 둘, 셋, 넷 등의 수를 세는 말이 있는데, 왜 또 一(일), 二(이), 三(삼), 四(사) 등의 말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또 하루, 이틀, 사흘, 보름이라는 말을 쓰다가고 1日, 2日, 3日, 15日이라는 말을 쓰니 더욱 헷갈릴 것 같아요.

사실 하나, 둘, 셋 등은 순수한 우리말이고요 一(일), 二(이), 三(삼) 등은 한자에서 온 말이에요. 우리가 경우에 따라 이런 말을 섞어 쓰고 있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가령 '연필 2자루'를 읽을 때는 '연필 이 자루'라고 하지 않고 '연필 두 자루'라고 읽고, 6학년 7반을 읽을 때는 '여섯 학년 일곱 반'이라고 하지 않고 '육학년 칠반'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경우에 따라 읽는 방법이 다르지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차차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수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바로 『계몽편』에 답이 나와 있네요. 물건을 세면서 나오게 된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는 세어야 할 물건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사람 수, 물건의 수, 날 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역시 수가 아니면 나타내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가령 우리 몸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혈액의 양, 식물이 자라는 데 알맞은 온도, 음식이 알맞게 조리되는 시간, 사람이 잉태되어 태어나는 데 걸리는 일 수 등 모두 수로 표현하고 있지요.

이렇게 지구상에 있는 만물은 수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수학이나 과학 공부를 잘 하려면 주위에 있는 물건이나 일을 수로 표시해보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지하철은 몇 분마다 지나가고 1시간에 몇 대가 지나가는지, 하루에 천 원씩 군것질을 한다면 6년 동안 얼마나 군것질을 하는지, 1분에 10번 숨을 쉰다면 내가 80살까지 살 경우 몇 번 숨을 쉬는지 계산하는 것도 다 우리 생활이 수와 관계있다는 것이지요.

수를 세는 것은 과학이나 수학에서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옛 사람들도 빠뜨리지 않고 가르쳤지요.

생각해 볼 문제

1. 다음에 말하는 물건의 수를 세어 보시오.

   가. 사람 손가락의 수 : ( )

   나. 승용차 바퀴의 수 : ( )

   다. 새의 날개 수 : ( )

2. 모든 사물은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곤충을 비교하여 수를 표시하여 봅시다.

물건	사람	곤충
머리		
가슴		
배		
팔다리		
더듬이		

3. 나와 관계된 다음 사항을 수로 표시하여 봅시다.

   가. 내 나이 : ( )살

   나. 내 키 : ( )센티미터

   다. 내 몸무게 : ( )킬로그램

   라. 내 생년월일 : ( )년 ( )월 ( )일

4. 다음의 물건을 어떻게 수로 표시하는지 설명해 보시오.

사물	설명하기
연필	
전깃줄	
공기	
쇠고기	

한자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한	두	석	넉	다섯	여섯	일곱
한자	一	二	三	四	五	六	七
음	일	이	삼	사	오	육(륙)	칠

뜻	여덟	아홉	열	일백	일천	일만	억
한자	八	九	十	百	千	萬	億
음	팔	구	십	백	천	만	억

2. 다음 그림의 수에 알맞은 한자를 쓰시오.

★★★★★★★	⚾⚾⚾⚾⚾	☂☂☂☂☂☂☂☂	🍎🍎🍎

3. 다음 한자를 〈보기〉처럼 읽고 써 보시오.

〈보기〉 九千四百二十一 - (구천사백이십일) - (9421)

가. 二百三十五 - (　　) - (　　)

나. 五千七百三 - (　　) - (　　)

다. 三億八千七百六十四 - (　　) - (　　)

4. 다음 ( )속에 한자의 음을 써 보세요.

가. 五月(　　) 八日(　　)은 어버이 날입니다.

나. 나는 어제 동화책을 三十七(　　)쪽을 읽었습니다.

구미호

옛날 어떤 젊은이가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불어 쓰고 가던 갓을 날려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우러 가니 솔개가 날아와서 물고 가 버렸지 뭐예요. 젊은이는 갓 一개를 찾으러 그 솔개를 따라 자꾸 가다보니 금강산까지 가게 되었어요.

금강산에 도착해 찾으니 一萬二千봉 九十九 암자라는 넓고 넓은 금강산에서 어찌 찾겠는가? 그래서 온 김에 구경이라도 하러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

그런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 자려고 어떤 집에 가니 젊은 색시 혼자 살고 있었지. 밥을 차려주어서 먹고 쉬고 있는데 부엌에서 칼 가는 소리가 나서 살짝 엿보니, 글쎄 치마 끝으로 하얀 꼬리 九개가 보였어. 九尾狐(구미호)가 사는 곳에 온 것이지. 그래서 일부러 자는 척하고 누워 있는데 구미호가 들어와 말했어.

"지금까지 九十九개의 간을 빼 먹었으니 이제 百개째 간을 빼 먹고 인간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칼을 가지러 부엌에 간 사이에 젊은이는 부리나케 뒷문으로 도망을 쳤지. 그러자 뒤에서 소리를 질러댔어요.

"이 놈! 어디 가느냐? 네가 어디를 가든 쫓아가 죽이리라."

다음날 청년은 걱정이 되어 금강산 절에 있는 스님을 찾아갔어요.

"이전에 누구를 살려준 적이 없는가?"

라고 하니 젊은이는 비로소 예전에 아이들이 잡은 자라를 살려준 기억이 났어. 그래서 스님은 부적을 三장 그려 주었어. 그리고는

"一개는 대문에 붙이고, 또 一개는 방문 위에 붙이고, 마지막 一개는 당신 몸에 지니고 다니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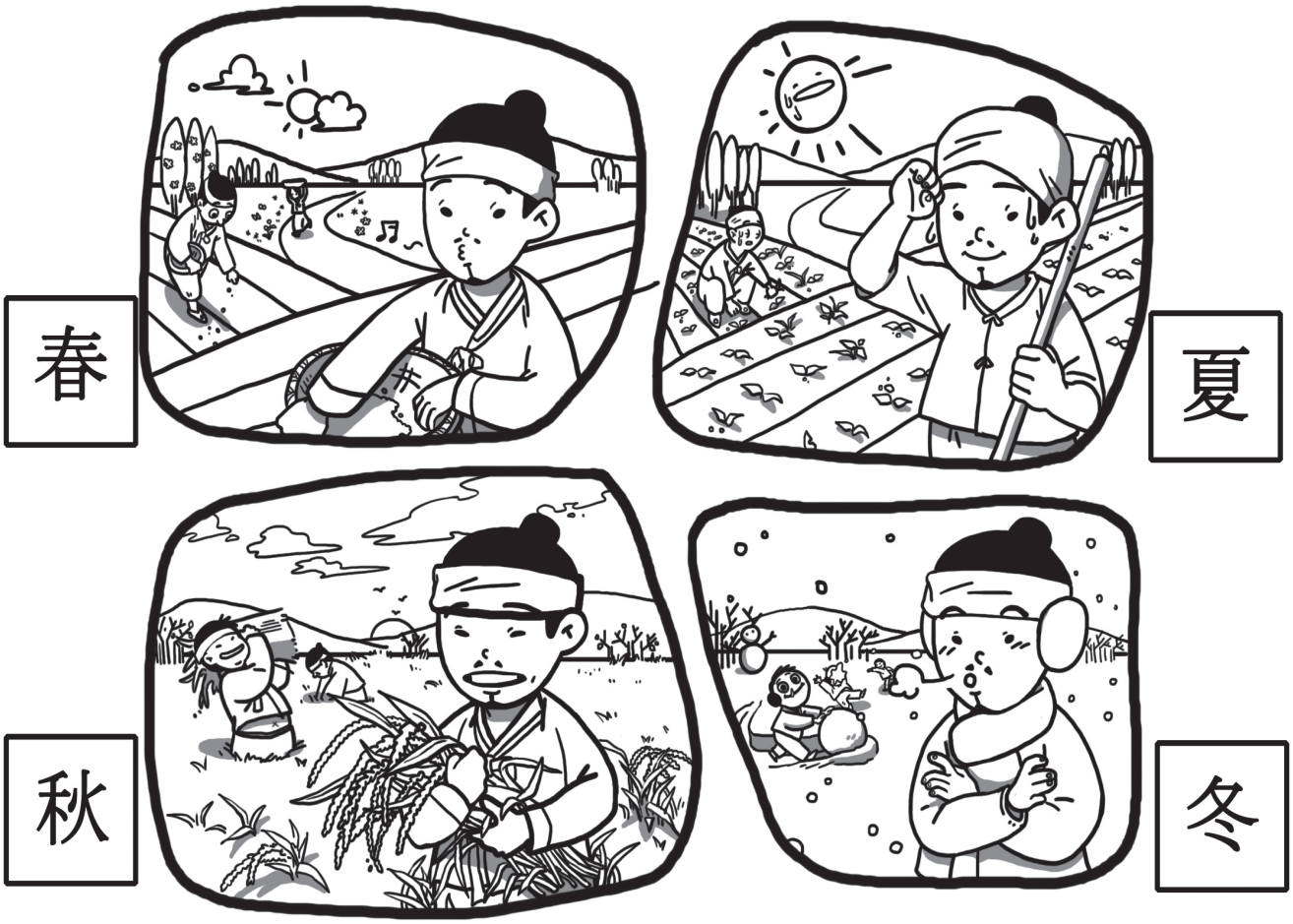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구미호는 그 사람 근처에 오지도 못했다고 해요.

관련 인성 가치	배려

4. 네 계절

一년 가운데
네 계절이 있으니,
네 계절이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것이다.
봄에는 만물이 나오고
여름에는 만물이 자라나고
가을에는 만물이 여물며
겨울에는 만물이 감추어진다. (『계몽편』「천편」)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본문 해설

한 해 동안 네[四] 계절이 있어요. 봄[春]에는 만물이 나오고, 여름[夏]에는 만물이 자라나며, 가을[秋]에는 만물이 여물고, 겨울[冬]에는 만물이 감추어진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만물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봄[春]이 되면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며 벌과 나비와 온갖 벌레들이 나오니까 만물이 나온다고 한 거예요.

여름[夏]에는 만물이 자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풀이나 나무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새끼를 낳고 자라기 때문이지요.

또 가을[秋]에 만물이 여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곡식이나 열매가 익어 단단해진다는 뜻이에요. 또 동물들의 새끼들도 자라서 튼튼해지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그리고 겨울[冬]이면 만물이 감추어진다는 게 뭘까요? 나뭇잎은 낙엽이 떨어져 앙상하게 되고, 풀잎은 말라서 죽게 되죠. 그 뿐만이 아니에요. 나비와 벌 등의 곤충들과 벌레들은 다 자취를 감추어버리죠. 그래서 감춘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만물이란 꼭 만 가지 물건이나 모든 물건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로 동물과 식물을 두고 한 말이에요. 산에 있는 바위나 강가의 돌이나 들판의 논밭은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자연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도 네 계절에 맞추어 변하지요. 농부는 봄[春]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夏]에는 곡식을 돌보며 가을[秋]에는 추수를 하고 겨울[冬]에는 저장을 하지요. 또 공장에서도 계절에 맞추어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시장에서도 계절에 맞는 물건을 팔아요. 사람들은 계절에 알맞은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계절에 맞추어 여행을 가거나 놀이도 해요.

생각해 볼 문제

1. 위의 글에 나오는 네 계절의 이름을 차례대로 써 보시오.

   ( )

2. 다음에 해당하는 계절을 써 보시오.

   가. 바다에서 수영과 물놀이를 한다 → [ ]

   나. 눈싸움을 하고 썰매를 탄다 → [ ]

   다. 부모님과 함께 벚꽃놀이를 즐긴다 → [ ]

   라. 주말농장에서 다 자란 고구마를 캤다 → [ ]

3. 다음 밑줄 친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세요.

   가. 봄에는 만물이 <u>나오고</u> → [ ]

   나. 가을에는 만물이 <u>여물며</u> → [ ]

4. 네 계절마다 학교에서 하는 일을 적어 보시오.

계절	하는 일
봄	
여름	
가을	
겨울	

5. 네 계절이 없는 지역의 생활을 조사해 보고 우리와 어떻게 다른 지 말해 보아요.

한자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봄	여름	가을	겨울	넉	때
한자	春	夏	秋	冬	四	時
음	춘	하	추	동	사	시

2. 다음에 관계되는 낱말의 번호를 아래 (보기)에서 찾아 써 보세요.

〈보기〉 ①四時(사시) ②春秋(춘추) ③春夏秋冬(춘하추동)

나이를 높여서 부르는 말 (　　)

네 계절 (　　)

봄 여름 가을 겨울 (　　)

3. 앞의 『계몽편』의 내용을 다시 써 보았어요. (　)속에 알맞은 한자의 뜻을 써 넣어 보세요.

일 년 가운데
또 四(　　) 계절이 있으니,
四(　　) 계절이란
春(　　) 夏(　　) 秋(　　) 冬(　　)이 그것이다.
春(　　)에는 만물이 나오고
夏(　　)에는 만물이 자라나고
秋(　　)에는 만물이 여물며
冬(　　)에는 만물이 감추어진다.

관련된 이야기

여름 기러기

계절에 얽힌 옛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옛날 어떤 권세가 있는 정승이 서울 북촌 고을에 살았는데 사람들이 벼슬자리하나 얻으려고 그 집에 늘 북적댔어요. 사람들이 벼슬을 얻으려고 뇌물까지 바치면서 하도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대감은 꾀를 하나 냈어요. 누구나 말로 자기를 속이면 벼슬을 주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여태껏 아무도 그 정승을 속이지 못했어요. 워낙 똑똑했기 때문이에요.

하루는 어떤 젊은이가 나타나 말했어요.

"대감, 아까 제가 수표교 다리를 건너다가 기러기 한 마리가 앵두를 물고가다 떨어뜨렸는데, 얼마나 큰지 물동이만 했어요."

"예끼! 이 사람아, 그걸 가지고 나를 속이려고 하는가? 그렇게 큰 앵두가 어디 있겠나?"

"아니, 수박만 했습니다."

"그런 앵두도 절대로 없네."

"아니, 주먹만 했습니다."

"그런 앵두를 본 적이 전혀 없네."

"사실 원래 앵두만 했습니다."

"그렇지! 앵두가 앵두만 하지 그렇게 클 리가 있겠나?"

"맞지요? 제가 틀림없이 사실대로 말했지요?"

"그렇네."

"그럼 저는 대감님을 분명히 속였습니다. 가을[秋]에 날아오는 기러기가 여름[夏]에 나는 앵두를 물고 갈 리가 절대로 없지요."

정승은 이렇게 계절에 따라 나오는 물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젊은이의 지혜가 쓸모 있을 것 같아 낮은 벼슬자리 하나를 주었지요.

관련 인성 가치	정직

5. 산과 강

땅의 높은 곳이 곧 山(산)이요

땅의 낮은 곳이 곧 물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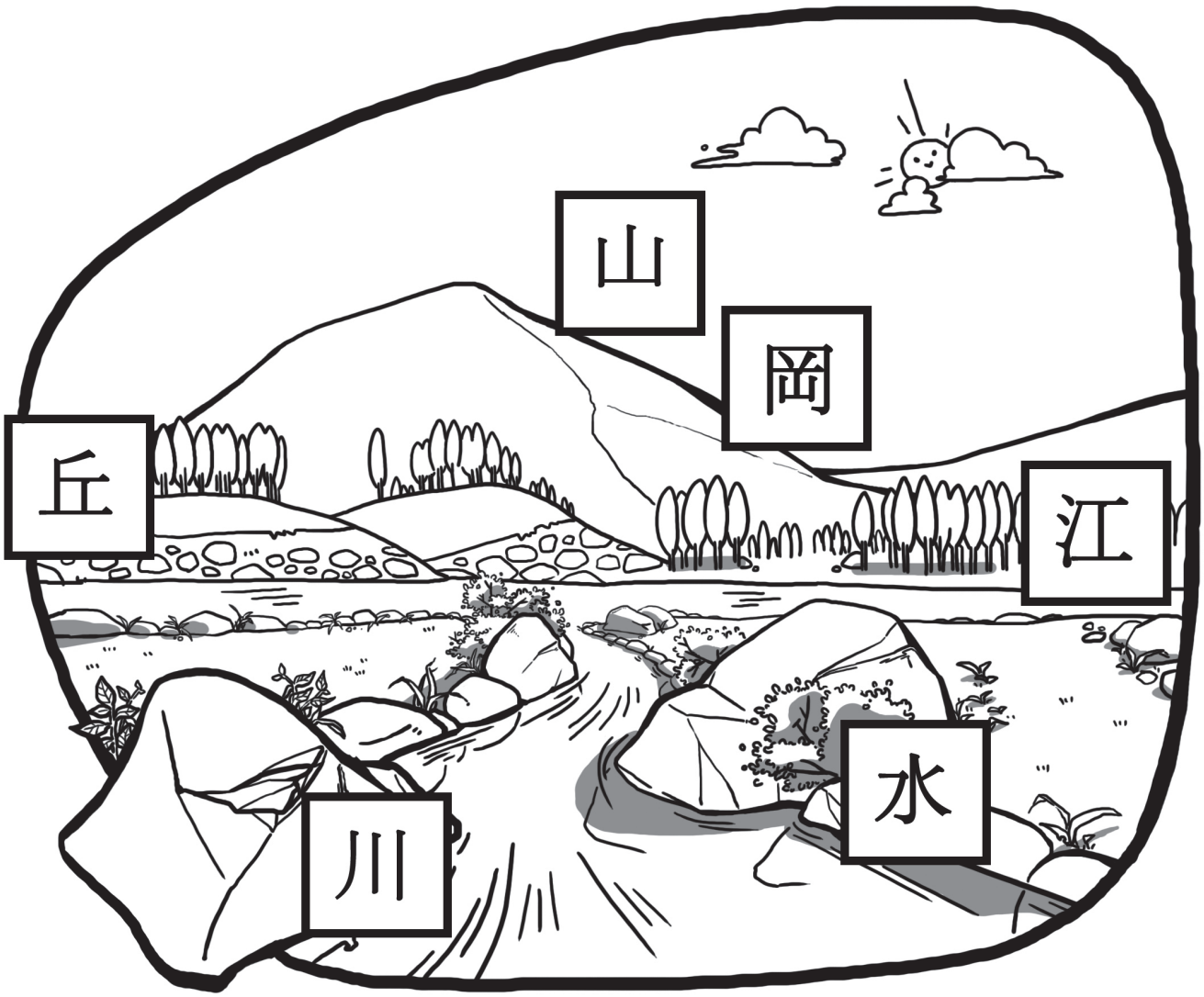
물의 작은 것을 냇물이라 부르고

물의 큰 것을 江(강)이라 말한다.

山(산)의 낮은 것을 언덕이라 부르고

山(산)의 높은 것을 산등성이라 말한다. (『계몽편』「지편」)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본문 해설

자 옛날 책에도 오늘날 교과서처럼 지형에 관계된 말들이 등장해요.

지형은 쉬운 말로 땅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山(산), 물[水], 냇물[川], 江(강), 언덕[丘], 산등성이[岡] 등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 지형을 배울 때 여기에 등장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지요. 가령 산악과 평지에 관계되는 것에는 山(산)과 언덕 외에 산맥·고개·화산·고원·평야 등이 있고, 江(강)이나 하천과 관계되는 지형에는 江(강)이나 냇물[川] 외에 섬·폭포·선상지·습지·호수·늪·삼각주 등을 배우지요. 또 바다와 관계되는 지형에는 바다 외에 대륙붕·만·해협·섬·반도·곶·개펄·산호초·해구 등이 있지요. 그 밖에 숲·초원·사막·농지 등이 있고, 인공지형으로 다리·건물·댐·제방·저수지·도로·수로·항구 등이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형을 종류별로 모으면 대단히 많아요. 가령 해발 천 미터가 넘는 山(산) 이름만 해도 백두산·한라산·지리산·설악산을 비롯하여 매우 많아요. 주요 江(강)을 봐도 압록강·두만강·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등 꽤 많아요. 그 외 작은 山(산)이나 江(강) 또는 냇물[川]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지요. 바다는 동해와 황해와 남해가 있고, 산맥도 태백산맥을 비롯하여 함경산맥·소백산맥 등이 있고, 평야에는 김해평야·호남평야·나주평야 등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지형도 빗물이나 강물, 바닷물과 바람, 지진이나 화산활동, 그리고 온도에 따라 항상 변하고 있지요. 이 또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러니 옛날 어린이들보다 공부할 내용이 많다고 불만을 가질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옛날 어린이들도 지금 우리가 보지 않는 많은 책들을 공부했답니다.

생각해 볼 문제

1. 앞에서 읽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 )안에 써 보자.

   가. 높은 땅 : 산 → 언덕과 ( )

   나. 낮은 땅 : 물 → ( )과 강

2.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과 강을 각각 3개씩 써 보시오.

   가. 산 → ( ), ( ), ( )

   나. 강 → ( ), ( ), ( )

3. 다음 ( )안에 해당하는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 보시오.

〈보기〉 냇물, 언덕, 산등성이, 산, 강물, 땅

   가. ( )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물고기를 잡는다.

   나. 세월은 ( )처럼 흘러가니 시간을 아껴라.

4. 산과 강이 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산과 강이 변하게 만드는 것에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 보기에서 골라 ○표시를 해 보세요.

화산활동	지진	비	바람	홍수	눈

5. 산과 강이 있는 우리나라와 산과 강이 거의 없는 사막이나 평지만 있는 지역과 비교하여, 산과 강이 있는 것이 없는 곳보다 왜 좋은지 예를 들어 말해 적어 보세요.

한자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뫼(산)	물	내	강	언덕	산등성이
한자	山	水	川	江	丘	岡
음	산	수	천	강	구	강

2. 다음 뜻풀이에 맞는 한자를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안에 쓰시오.

〈보기 〉 ① 山 ② 水 ③ 川 ④ 江

가. 산과 내라는 뜻으로 자연을 일컫는 말 : 山□

나. 강과 산이라는 뜻으로 나라의 영토를 일컫는 말 : □山

다. 산과 물이라는 뜻으로 경치를 일컫는 말 : 山□

3. 밑줄 친 한자에 해당하는 글자를 □안에 쓰시오.

가. 수□요일에는 야구를 합니다.

나. 봄이 오니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왔다.

4. 다음 한자를 〈보기〉처럼 말해 보시오.

〈보기 〉 天(하늘천)

가. 丘 ( )

나. 岡 ( )

5. 다음 한자를 읽어 보시오.

가. 山川 ( )

나. 江山 ( )

다. 山水 ( )

★더 알아보기

1. 山이 붙은 낱말을 알아보자.

산골, 산새, 산나물, ( ), ( ), ( ), ( )

2. 水가 붙은 낱말을 알아보자.

수중식물, 음료수, 수증기,( ), ( ), ( )

3. 江이 붙은 날말을 알아보자.

한강, 강물, 강모래, ( ),( ), ( )

관련된 이야기

山과 江이 생긴 유래

山과 언덕[丘]과 江과 냇물[川]은 어떻게 하여 생겼을까요? 4학년 이상이라면 대강 할 것 같기도 한데, 과학을 모르면 알기 어려워요. 옛날에도 아이들이 할머니나 어른께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때는 과학을 몰랐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들려주곤 했지요.

아주 오래된 옛날, 하늘나라 임금님의 딸이 가락지를 가지고 놀다가, 그만 잘못하여 저 아래 세상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공주는 속이 상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늘나라 임금님이 왜 우느냐고 물었어요.

"저 아래 세상에 가락지를 떨어뜨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말하자 임금님이 한 장군을 불러 아래 세상에 내려가서 가락지를 찾아오라고 명령했어요.

아래 세상은 팥죽을 쑤어 놓은 듯 온통 땅이 진흙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가락지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보이지 않았지요. 장군은 할 수 없이 진흙을 주물러 보기도 하고, 넓게 파보고 쌓기도 하고, 또 손으로 반듯하게 진흙을 골라보기도 하고, 길게 긁어 보기도 하였어요. 그래도 가락지가 발견되지 않자 하는 수 없이 장군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그만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 땅에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살게 되었지요. 넓게 파낸 곳은 바다가 되고, 쌓아 올린 곳은 山이 되었으며 반듯하게 고른 곳은 들판이 되었고, 길게 긁어 본 것은 江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山과 江과 들판과 바다가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관련 인성 가치	책임

6. 날씨

山과 바다의 기운*이 올라가 하늘의 기운과 서로 만나면
구름과 안개를 만들고 눈과 비를 내리거나
서리와 이슬을 만들기도 하고 바람과 우레를 만든다.
더운 기운이 증발해 구름을 만들어 비를 내리게 하고
찬 기운이 차갑게 모이면 이슬이 맺히거나 서리가 된다.
봄과 여름에는 비와 이슬이 많고
가을과 겨울에는 서리와 눈이 많으나
변화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바람과 우레다. (『계몽편』「지편」)

*기운 : 사물을 생기게 하거나 움직이는 힘 또는 에너지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본문 해설

옛날에도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날씨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농사를 짓는 일은 날씨와 관계가 많기 때문에 날씨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했지요.

그래서 날씨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계몽편』에도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과학시간에 날씨에 대해 배우는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과 비교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선 구름[雲]·안개[霧]·비[雨]·눈[雪]·서리[霜]·이슬[露]·바람[風]·우레[雷]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네요. 한자를 살펴보면 바람만 제외하고, 모두 비를 뜻하는 '雨(우)'자가 부수로 들어 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요. 바로 온갖 날씨를 만드는 것이 비[雨] 곧 물과 관계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구상에 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날씨 변화가 생긴다고 본 것이지요.

바로 앞의 본문에서 말한 '山과 바다의 기운'이 그것을 가리키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수증기에요. '더운 기운이 증발해 구름[雲]을 만들어 비[雨]를 만든다'는 말은 바로 더운 날 수증기가 상승하여 찬 공기와 만나 구름[雲]이 되고 그 구름[雲]에서 비[雨]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찬 기운이 차갑게 모이면 이슬[露]이 맺히거나 서리[霜]가 된다'는 말도 공중의 수증기가 차가운 밤중에 냉각되면서 물체에 엉겨 붙어 물방울이 된 것이 이슬[露]이고, 그 물방울이 언 것이 서리[霜]인데 비교적 잘 표현하고 있지요.

또 비[雨]와 이슬[露]은 봄과 여름에, 서리[霜]와 눈[雪]은 가을과 겨울에 내린다는 것은 대체로 그렇다는 뜻이지 언제나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문제는 바람[風]과 우레[雷]인데, '변화를 헤아릴 수 없다'고 한 말이 솔직한 표현이네요. 바람[風]을 이해하려면 각종 과학 지식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지식은 과학이 발달한 시기에 나온 것이지요. 우레[雷] 또한 전기의 방전현상으로 옛날에는 알 수 없었던 일이었죠.

생각해 볼 문제

1. 앞의 본문을 보고 빈 칸에 서로 관계 되는 말을 넣어 완성시켜 보시오.

기운	온도	계절		날씨	
더운 기운	높다	봄			이슬
찬 기운			겨울	서리	

2. 구름과 눈과 비가 되는 '산과 바다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은 오늘날의 과학 용어로 말하면 각각 무엇일까요? 줄로 이어 보시오.

⑴ 산과 바다의 기운 ● ● 찬 공기

⑵ 하늘의 기운 ● ● 수증기

3. 다음에 설명하는 자연현상은 무엇을 말하는지 본문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보기〉에서 골라 써 보시오.

〈보기〉 눈 구름 이슬 서리 안개

가. 봄철이나 여름철에 땅 표면의 수증기가 밤이 되면 식어서 풀잎이나 나뭇잎에 물방울이 되어 맺힌 것 ( )

나. 더운 수증기가 공중으로 올라가 찬 공기를 만나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알갱이가 되어 하늘에 떠 있는 것 ( )

4. 구름, 비, 이슬, 안개, 서리, 눈 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

① 불 ② 물 ③ 암석 ④ 나무

5. 다음은 무엇의 원리인지 〈보기〉에서 골라 답을 써 보시오.

〈보기〉 비, 이슬, 안개, 구름, 서리, 눈

가. 더운 여름철 찬 음료수 병 밖에 생긴 물방울 : ( )

나. 꽁꽁 언 아이스크림 포장지 표면에 하얗게 생긴 얇은 얼음 : ( )

한자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구름	이슬	비	서리	안개	눈	바람
한자	雲	露	雨	霜	霧	雪	風
음	운	로(노)	우	상	무	설	풍

2. 다음 한자어의 음을 써 보시오.

가. 風雨(　　) : 바람과 비를 아울러 이르는 말

나. 雲霧(　　) : 구름과 안개를 아울러 이르는 말

다. 風霜(　　) : 바람과 서리의 뜻. 또는 온갖 어려움과 고생을 비유하는 말

다. 霜雪(　　) : 서리와 눈을 아울러 일컫는 말

3. 앞의 『계몽편』의 내용을 다시 써 보았어요. (　)속에 알맞은 한자의 뜻을 써 넣어 보세요.

山(　　)과 바다의 기운이 올라가 하늘의 기운과 서로 만나면
雲(　　)과 霧(　　)를 만들고 雪(　　)과 雨(　　)를 내리거나
霜(　　)와 露(　　)을 만들기도 하고 風(　　)과 우레를 만든다.
더운 기운이 증발해 雲(　　)을 만들어 雨(　　)를 내리게 하고
찬 기운이 차갑게 모이면 露(　　)이 맺히거나 霜(　　)가 된다.
春(　　)과 夏(　　)에는 雨(　　)와 露(　　)이 많고
秋(　　)과 冬(　　)에는 霜(　　)와 雪(　　)이 많으나
변화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이 風(　　)과 우레다.

관련된 이야기

왕상의 효도

『소학』에 나오는 옛 이야기예요.

옛날 중국 삼국시대 말기 위나라에 이름난 효자로 알려진 왕상이라는 젊은이가 살았어요.

그는 일찍이 친어머니를 여의고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지요. 그녀는 왕상의 아버지께 그를 헐뜯는 고자질을 잘했어요. 그 때마다 그의 아버지는 그 벌로 항상 쇠똥을 치우게 했는데, 그래도 왕상은 불평하지 않고 새어머니와 아버지를 공손하게 잘 섬겼어요.

어느 추운 겨울[冬] 날에 새어머니는 싱싱한 물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어요. 왕상은 어머니를 위해 물고기를 잡으러 江으로 가서 얼음을 깨려고 하는데, 갑자기 얼음이 녹으면서 커다란 잉어 두 마리가 튀어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드렸어요.

또 한 번은 새어머니가 참새구이를 먹고 싶다고 했어요. 왕상이 참새를 잡으러 가려는데 마침 수십 마리의 참새 떼가 그의 방으로 날아들지 않겠어요? 그것들을 잡아다가 어머니께 구워 드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놀라고 감탄했어요. 모두 왕상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그렇게 된 일이라고 입을 모았지요.

그리고 뜰에 있는 과일나무에 열매가 맺혔는데 새어머니는 또 그것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였어요. 바람[風]이 불고 큰 비[雨]가 올 때마다 왕상은 열매가 떨어질까 봐 나무를 붙들고 울었어요. 그 효성이 지극한 것이 이와 같았어요.

정말로 이런 기적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효도를 강조한 옛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왕상의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새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나요?

관련 인성 가치 **효도**

7. 색깔과 맛과 소리

靑色(청색), 黃色(황색), 赤色(적색), 白色(백색), 黑色(흑색)으로
물건의 색깔을 정하며
신맛, 짠맛, 매운맛, 단맛, 쓴맛으로
물건의 맛을 정하고
宮(궁)·商(상)·角(각)·徵(치)·羽(우)*로
물건의 소리를 정하였다. (『계몽편』 「수편」)

*宮(궁)·商(상)·角(각)·徵(치)·羽(우) : 옛날의 동아시아 음악이나 지금의 국악에도 쓰이는 다섯 가지 음

물질	나무	불	흙	쇠	물
계절	봄	여름	늦여름	가을	겨울
색깔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방위	동	남	중앙	서	북
얼굴	눈	혀	입	코	귀
소리	각	치	궁	상	우
맛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장기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냄새	누린내	탄내	향내	비린내	썩은 내

본문 해설

우리 조상들이 사물을 이해했던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또는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먼저 두 가지로 분류하는 방식에는 앞의 본문에서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陰陽(음양)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차갑고 부드럽고 움츠려드는 성격을 띤 음의 성질을 지닌 사물과 따뜻하고 강하고 뻗어나가는 성격을 띤 陽(양)의 성질을 지닌 사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령 남자·불·태양·여름·강함·남쪽 등은 양의 성질을 지녔고, 여자·물·겨울·부드러움·북쪽 등은 陰(음)의 성질을 지녔다고 보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하게 음과 양으로 분류해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전기의 음극과 양극, 수학에서 음수와 양수 등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표현할 때 쓰이고 있지요. 우리 태극기에도 음양이 들어있는데 붉은색 문양은 양, 푸른색은 음을 상징하고 있지요.

그런데 음양의 두 가지로 분류하다 보니 너무 단순하여, 본문에 보이듯이 다섯 가지로 분류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것을 五行(오행)이라 불렀어요. 모든 사물을 다섯 가지로 분류했던 것이지요. 앞쪽에 제시한 표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색깔[色]이나 소리나 맛이나 계절과 방위 등에서도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이해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물은 꼭 다섯 가지로만 정해져 있지 않는 것도 많거든요. 가령 소리나 냄새 등이 꼭 다섯 가지로 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분류방식은 옛 사람들이 사물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과학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분류방식을 알아두면 옛 고전과 역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생각해 볼 문제

1. 고구려 고분 벽화를 보면 네 방향을 지키는 신령스런 동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은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앞 쪽에 나온 표를 보고 방향과 색깔을 맞춰 보세요.

사신	방향	색깔
청룡		
백호		
주작		
현무		

2. 앞의 글에 등장하는 신맛, 짠맛, 매운맛, 단맛, 쓴맛은 혀의 어느 부위에서 느낄 수 있는지 자료를 찾아 혀를 그리고 표시해 보세요.

3. 사물을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없을까요? 빈칸에 표시 해 보세요.

방위				
얼굴				
계절				
맛				

4. 앞의 본문에서 옛사람들이 분홍색이나 녹색 또는 회색 같은 것은 왜 다섯 가지 색깔에 포함시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말해 보세요.

한자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푸를	누를	붉을	흰	검을	빛
한자	靑	黃	赤	白	黑	色
음	청	황	적	백	흑	색

2. 다음 설명에 관계되는 낱말의 번호를 〈보기〉에서 골라 써 보시오.

〈보기〉 ① 黃色 ② 靑白 ③ 白色 ④ 黑色

가. 검은색과 흰색을 아울러 이르는 말 : (　　)

나. 청군과 백군을 줄여서 쓰는 말 : (　　)

다. 동아시아 인종의 색깔을 대체로 일컫는 말 : (　　)

3. 다음 □안에 들어갈 한자의 음을 써 보시오.

가. 靑出於藍(□출어람) : 푸른색이 쪽에서 나왔으나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낫다는 말.

나. 白衣從軍(□의종군) : 벼슬이 없는 사람으로 군대를 따라 싸움터에 나감을 이르는 말

다. 黃口乳臭(□구유취) : 부리가 누런 새 새끼같이 아직은 어려서 입에서 젖비린내가 난다는 뜻으로, 남을 어리고 하잘것없이 깔보는 말

4. 다음 〈보기〉를 보고 우리나라 태극기에 들어 있는 색깔을 모두 골라 보시오. (　　)

〈보기〉 ① 黃色 ② 靑色 ③ 白色 ④ 黑色 ⑤ 赤色

관련된 이야기

여우 누이

옛날 아들만 셋인 어떤 부자가 딸을 낳게 해달라고 절에 가서 부처님께 빌었어요. 얼마 후 그 부자에게 귀여운 딸이 생겼어요.

그런데 몇 년 후부터 그 부잣집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고 나면 소가 피를 흘린 채 한 마리씩 죽고 마는 거예요. 부자는 차례대로 아들들에게 밤중에 자지 말며 지키게 하였으나 졸음을 참지 못한 첫째와 둘째 아들은 그만 졸고 말았어요. 셋째 아들은 자지 않고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글쎄 자정이 되자 누이동생이 방문을 스르르 열고, 마당에서 공중제비를 한 바퀴 넘더니 외양간으로 곧장 가서는 말의 엉덩이에 손을 푹 집어넣어 말의 간을 꺼내먹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셋째 아들은 본 그대로 말했지만, 아버지는 어린 여동생에게 누명을 씌운다고 집에서 쫓아내고 말았어요. 쫓겨난 셋째는 여기저기 떠돌다가 깊은 산골에 있는 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일도 도와주고 공부를 하면서 십년이란 세월이 흘렀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향집에 가고 싶었어요. 주지스님께 고향에 한 번 가 보겠다고 하니 黃色과 赤色과 靑色으로 된 병 세 개를 주면서 위급할 때 쓰라고 주었지요.

고향에 오니 다 쓰러져 가는 고향집에 누이 혼자만 살고 있었어요. 누이가 밥을 지어 준다고 부엌으로 들어가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누이의 치마 끝에 여우 꼬리가 아홉 개나 보이는 거예요. 이제야 모든 걸 눈치 챈 셋째가 말을 타고 도망 오는데, 누이는 '히히 오라버니' 하면서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黃色 병을 던지니 가시덤불이 생겨 누이를 가로막았는데, 그것마저 뚫고 따라 오지 않겠어요? 깜짝 놀라 이번에는 赤色 병을 던지니 불길이 치솟았어요. 그래도 누이는 불길을 뚫고 따라왔지요. 마지막으로 靑色 병을 던지니 큰 강물이 생겨 뒤 따라오던 누이는 그만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관련 인성 가치	소통

8. 날짜와 시각

하나의 낮과 밤 안에 12時間(시간)이 있으니

12時間(시간)이 모여 하루가 되며

30日(일)이 모여 한 달이 되고

열두 달이 모여 一年(일년)이 된다.

어떤 달에는 작은 달이 있어 29日(일)이 한 달이 되고

어떤 해에는 윤달*이 있어 13달이 一年(일년)이 된다.* (『계몽편』「천편」)

*윤달 : 음력에서 같은 달이 두 번 연속 오는 것
*모두 음력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다.

曆(역)	太陰曆(태음력)	太陽曆(태양력)
기준	달의 운동	태양의 운동
하루의 시간	12시간	24시간
한 달의 일 수	30일 또는 29일	31일, 30일 또는 28일(2월은 4년마다 29일)
일 년의 달 수	12달 또는 13달(윤달)	12달
편리한 점	밀물과 썰물, 달의 크기 변화를 쉽게 알 수 있음	24절기를 비롯한 계절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음

본문 해설

앞의 본문에서 음력과 관계된 내용을 소개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대개 음력으로 날짜[日]를 헤아리고 행사를 했어요. 제사를 지내며 혼인 날짜[日]를 정하고, 생일을 기억하여 잔치를 벌이는 일에 모두 음력을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음력이 무엇일까요? 음력이란 다른 말로 태음력으로 달의 운동을 중심으로 만든 달력이에요. 그 반대로 태양을 중심으로 만든 달력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 곧 태양력인 것이지요. 그래서 양력과 음력은 한 달의 날 수와 또 일 년의 달의 수가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시계가 없던 옛날에는 자연의 시계를 이용했지요.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하늘에 뜬 달의 모양을 보고 날짜[日]와 時間(시간)을 알 수 있었답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몇 분 몇 초 단위의 정확한 시각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었어요. 가령 보름달이 東쪽 하늘에 있을 때와 중천에 있을 때와 西쪽 하늘에 있을 때와 시각이 다 달라요. 東쪽과 西쪽은 정확히 오늘날로 치면 12시간의 차이가 나고 중천에 오면 6時間(시간)의 차이가 나지요. 다른 달 모양도 이런 식으로 따지면 날짜[日]를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음력이 시각을 아는데 편리했던 거예요. 그 뿐만 아니에요. 음력으로 날짜[日]를 알아두면 옛날 전기가 없던 시절 어느 날[日]의 밤이 어둡고 밝은지를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달빛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또 있어요.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각[時]을 정확히 알 수 있어서, 개펄에 나가 일을 하거나 배를 타고 육지에 드나들 때[時] 매우 유용해요. 지금도 어촌에서는 음력으로 된 달력을 쓰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에요.

그런데 훗날 서양에서 양력이 들어오면서 그것과 섞어서 쓰기도 했지요. 바로 음력 달력에 양력에 해당하는 24절기가 들어간 것이 그 증거랍니다.

생각해 볼 문제

1.달은 날짜에 따라 모양이 다르게 보입니다. 다음의 음력의 날짜에 맞게 달의 모양을 그려 보세요.

날짜	2~3일경	7~8일경	15~16일경	22~23일경	27~28일경
달모양					

2. 옛날에 하루를 12시간으로 보았을 때 오늘날 해당하는 시각을 써넣어 표를 완성해 보시오.

옛날 시각	子(자)시	丑(축)시	寅(인)시	卯(묘)시	辰(진)시	巳(사)시
오늘날 시각	21~01시	~	~	~	~	09~11시
상징 동물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옛날 시각	午(오)시	未(미)시	申(신)시	酉(유)시	戌(술)시	亥(해)시
오늘날 시각	11~13시	~	~	~	~	19~21시
상징 동물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3. 다음의 계절과 음력과 양력의 달이 속한 표이다. 빈 칸에 알맞은 달을 써넣어 보세요.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음력	정월, 2월, 3월			10월, 11월, 12월
양력	3월, 4월, 5월			

4. 다음의 글을 오늘날의 양력에 맞게 고쳐 보세요.

하나의 낮과 밤 안에 (　　)時間(시간)이 있으니
(　　)時間(시간)이 모여 하루가 되며
(　　)日(일)이나 (　　)日(일)이 모여 한 달이 되고
(　　)달이 모여 一年(일년)이 된다.
二月(이월)은 작은 달이라 (　　)日(일) 또는 (　　)日(일)이 한 달이 된다.

한자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때	날	달	해	사이
한자	時	日	月	年	間
음	시	일	월	년	간

2. 다음에 설명하는 한자어의 음을 써 보시오.

가. 日時(　　) : 날짜와 시간을 일컫는 말

나. 時間(　　) : 시각과 시각의 사이

다. 年間(　　) : 한 해 동안

3. 우리 가족의 생년월일을 써 봅시다.

가. 아버지 : (　　)年 (　　)月 (　　)日

나. 어머니 : (　　)年 (　　)月 (　　)日

다. 나 : (　　)年 (　　)月 (　　)日

4. 다음 (　) 속에 한자의 음을 써 넣어 보세요.

五月(　　) 五日(　　)은 어린이날입니다.
이 날은 어린이들에게는 一年(　　) 가운데 가장 즐거운 날이지요.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도 많은 행사들을 펼치는데, 어린이들은 대개 이 날만은 공부에서 해방되어 즐거운 時間(　　)을 보낸답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옛날 어느 시골 농부의 외양간에서 풀을 먹고 있던 소가 마당에 있는 닭에게 말했어요.

"나는 힘든 일을 해도 지푸라기나 풀 섞인 콩깍지나 먹는 게 고작인데, 당신은 매일 노닥거리며 장난치고 놀아도 좋은 곡식만 먹으니 세상은 참 불공평하구려."

"무식하면 입 다물고 있어요. 당신은 배운 게 없어서 그렇고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힘 안 들이고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이 때 옆에서 듣고 있던 개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 나는 도둑을 지키느라 밤새 고생해도 겨우 밥찌꺼기나 얻어먹는데, 도대체 네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말조심해요. 나는 새벽마다 寅時(인시: 3시~5시)가 되면 일어날 시각을 알려주지요. 농부들에게 농사짓는 時間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아요? 그것도 밤의 길이가 달라지는 것에 맞추어 자지 않고 時間을 조절해서 알려주는 게 쉬운 줄 알아요?"

"난 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이 세상에 時間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꼬끼오' 하고 울 때 '꼬'는 알릴 告(고)자의 뜻이며, '끼'는 그 其(기)자의 뜻이고 '오'는 중요하다는 요긴할 要(요)자의 뜻이니, 합치면 '그 時間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당신들이 그 깊은 뜻을 알 리가 없겠지만."

"뭐라고?"

화가 난 개가 닭 벼슬을 꽉 깨물었어요. 그러자 닭은 물려서 갈라진 벼슬에서 피를 흘리며 후다닥 지붕으로 날아 올라가 버렸어요. 지붕에 올라가서도 닭이 약을 올리자 개는 지붕 위를 쳐다보며 '멍멍' 짖기만 했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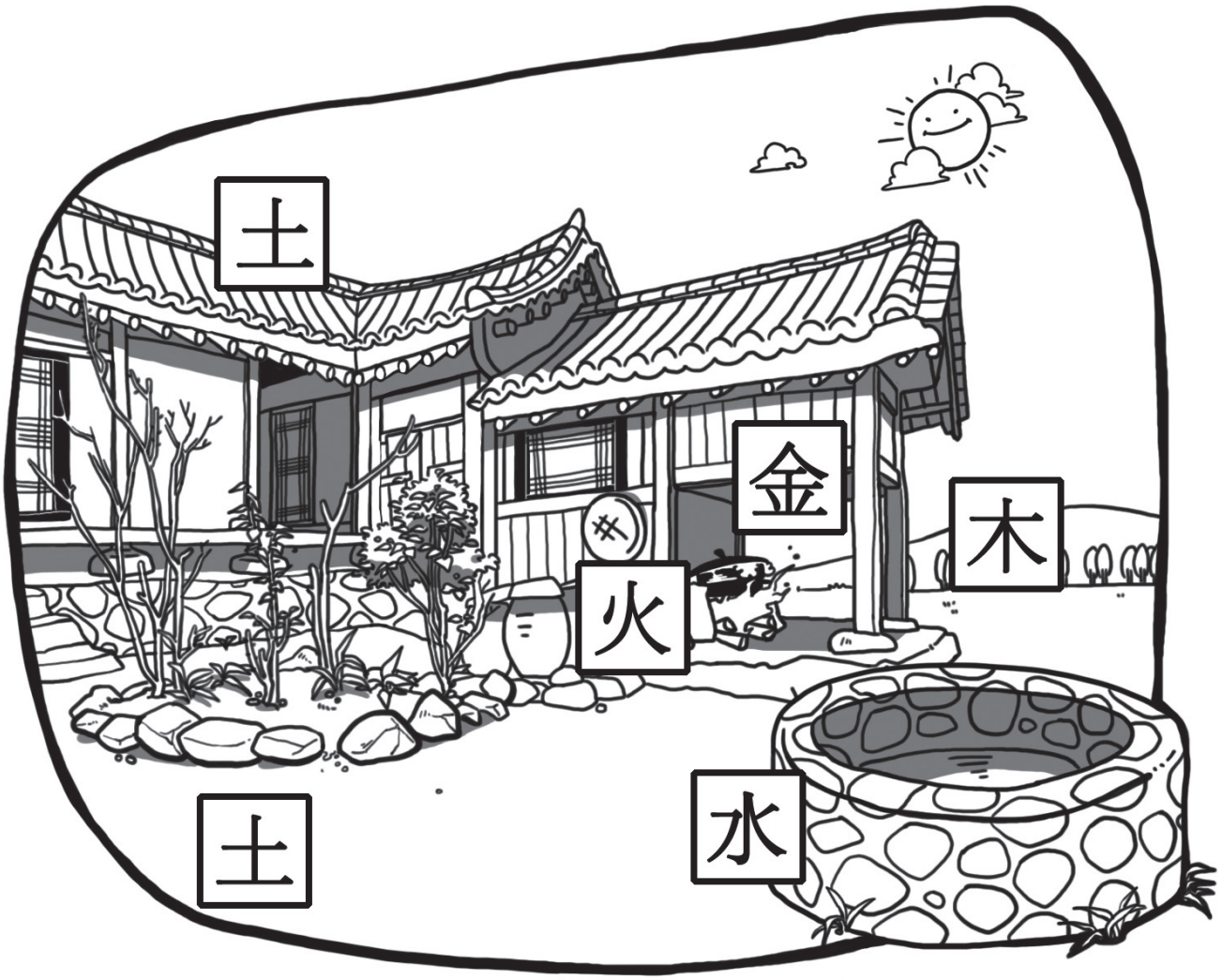
관련 인성 가치	소통

9. 다섯 가지 물질

金(금) 木(목) 水(수) 火(화) 土(토)가 하늘에 있는 것은
五星(오성)*이 되고
땅에 있는 것은 다섯 가지 물질이 된다.
쇠로는 그릇을 만들고
나무로는 집을 짓고
곡식은 흙에서 자라는데
물과 불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니,
무릇 사람이 날마다 쓰는 물건은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아닌 것이 없다. (『계몽편』「지편」)

*五星(오성) : 水星(수성)·金星(금성)·木星(목성)·火星(화성)·土星(토성)의 다섯 행성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본문 해설

본문의 내용은 다섯 가지 물질에 해당하는 쇠[金]·나무[木]·물[水]·불[火]·흙[土]을 소개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과학시간에 물체와 물질을 분류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예를 들어 책상·타이어·지우개·우산 등은 물체이고, 나무·고무·철·플라스틱은 물질이라고 해요. 물질이 물체를 이루는 재료가 되는 것이지요.

옛날 사람들도 물질을 대체로 다섯 가지로 나누어 쇠[金]·나무[木]·물[水]·불[火]·흙[土]이 그것이라고 여겼지요. 그래서 쇠로 놋그릇이나 솥과 같은 그릇을 만들고, 나무로 된 기둥이나 서까래로 집을 지었으며, 흙에서 농사를 지어 곡식을 생산하였지요. 또 물과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끓이거나 만드는데, 모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 안 되는 중요한 물질이지요.

그런데 이 다섯 가지 물질의 성질이 사물에 따라 다 들어있다고 봐요. 앞에서 소개한 '옛날에 사물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는 방식'의 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별에도 그런 성질이 있는데, 가령 水星(수성)·金星(금성)·木星(목성)·火星(화성)·土星(토성)의 다섯 떠돌이별이 그런 성질을 지녔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대와 중세 서양에서는 우리와 달리 물질을 네 가지로 분류했어요. 바로 흙[土]·물[水]·공기[氣]·불[火]이 그것이에요. 거기는 나무와 쇠를 빼고 대신 공기를 넣었죠. 만물은 이 네 가지 물질이 섞여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어요.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동양이나 서양 모두 물질을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니에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비록 다섯 가지나 네 가지 물질을 분류했지만, 자연을 탐구하여 이해하려고 힘썼던 점은 오늘날과 다르지 않아요.

생각해 볼 문제

1. 앞의 글을 읽고 다섯 가지 물질을 말해 보시오.
   (　　)

2. 다음 〈보기〉의 물건을 아래의 물질로 분류하여 보세요. 양쪽에 해당되면 양쪽 모두에 쓰세요.

〈보기〉 술, 놋그릇, 벽돌, 솥, 서까래, 맷돌, 호미, 쟁기, 마루

   가. 쇠 :
   나. 나무 :
   다. 물 :
   라. 흙 :

3. 다음은 다섯 가지 물질 가운데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을 녹이거나 찍어내거나 막아서 이기는 경우입니다. 알맞은 물질을 써 넣으시오.

   쇠 → (　　) → (　　) → 흙 → 나무 → 쇠

4. 다음 질문의 답을 다섯 가지 물질 가운데서 말해 보세요.
   가. 물은 무엇을 자라서 생겨나게 하나요? (　　)
   나. 물건이 불에서 타고나면 재가 생기는 데, 이 재는 다섯 가지 물질 가운데 어디에 속할까요? (　　)

5. 자연물 가운데서 앞의 다섯 가지 물질 외에 또 있으면 말해 보세요.
   (　　)

한자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쇠	나무	물	불	흙	별
한자	金	木	水	火	土	星
음	금	목	수	화	토	성

2. 다음 □안에 알맞은 한자의 음을 쓰시오.

가. 水星(　　) :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

나. 木星(　　) :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

다. 土星(　　) : 고리가 있는 행성

3. 다음 □안에 알맞은 한자를 써 보세요.

가. 日요일 전 날은 □요일입니다.

나. 月요일 다음 날은 □요일입니다.

다. 7月 10日이 월요일이라면 7月 26日은 □요일입니다.

4. 다음의 글에서 한자의 뜻을 (　)안에 쓰시오.

> 땅에 있는 것은 다섯 가지 물질이 된다.
> 金(　　)으로는 그릇을 만들고
> 木(　　)로는 집을 짓고
> 곡식은 土(　　)에서 자라는데
> 水(　　)과 火(　　)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니,
> 무릇 사람이 날마다 쓰는 물건은
>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아닌 것이 없다.

관련된 이야기

선덕여왕의 지혜

일연 스님이 엮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에요.

신라 27대 선덕여왕 때 영묘사라는 절의 옥문지(玉門池)라는 연못에 겨울철인데도 많은 개구리들이 나와서 3~4일 동안 울고 있었어요. 나라 안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선덕여왕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왕은 급히 날쌘 군사 2천 명을 뽑아 西쪽 교외로 가서 女根谷(여근곡)을 조사하여 찾아가면 반드시 적의 병사들이 있을 것이니 가서 덮쳐서 죽이라고 시켰어요.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여근곡을 찾아가니 과연 백제 군사 5백 명이 그곳에 와서 숨어 있었으므로 모두 잡아서 죽였어요. 또 백제 장군 오소는 경주 南山 고개 바위 위에 숨어 있었으므로 포위하여 없앴고, 뒤따라 오는 군사 1300여명도 모두 물리쳐 없앴어요.

그 뒤 신하들이 선덕여왕에게 어떻게 해서 그 일을 알았냐고 여쭈었어요.

"개구리의 성난 모습은 병사의 모양이며, 연못의 이름에 옥문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것은 여자의 생식기를 뜻하니, 여자는 陰(음)이고 음은 그 색깔이 白色이고 白色은 또 西쪽 방향이므로 군사가 西쪽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여러 신하들이 그 지혜에 깊이 감탄하였어요.

여근이란 여자의 생식기의 다른 말인데 여근곡이란 여자의 생식기를 닮은 골짜기란 뜻이지요. 앞의 옥문지와 연결이 되는 지명이에요.

그런데 신라의 西쪽에서 온 군사들은 당연히 백제이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서 陰(음)과 白과 西쪽으로 연결이 될까요? 陰陽(음양)이론에서 白色과 西쪽은 음이에요. 또 다섯 가지 물질의 분류방식으로 보아도 쇠[金]-가을-白色-西쪽-코-매운맛-폐장-비린내와 관계되는 점을 이용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삼국시대에 이렇게 사물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는 지식을 갖고 활용했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이론을 굳게 믿었던 증거에요.

관련 인성 가치	존중

10. 다섯 가지 도리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만물의 무리 가운데 사람이 가장 귀하니,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다섯 가지 도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맹자가 말하기를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으며,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으며,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별이 있으며,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으며,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다."
고 하였으니. 사람으로서 이 다섯 가지 떳떳한 도리를 알지 못하면, 동물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동몽선습』「서론」)

*다섯 가지 도리 : 五倫(오륜)을 말함.

父子有親(부자유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다.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君臣有義(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다.

夫婦有別(부부유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별이 있다.

長幼有序(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다.

朋友有信(붕우유신)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다.

본문 해설

五倫(오륜)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오륜이란 옛날 동아시아 사람들이 지켰던 아주 기본적인 다섯 가지 도리에요. 거기에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는 父子有親(부자유친),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는 君臣有義(군신유의), 부부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夫婦有別(부부유별),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한다는 長幼有序(장유유서),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朋友有信(붕우유신)이 그것이에요.

옛날에는 사회가 오늘날처럼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사회의 질서를 나름대로 유지해 왔던 거예요.

오늘날은 사회가 복잡하고 인간관계도 다양하여 이 다섯 가지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 무리가 따르겠죠? 더구나 君臣有義(군신유의)의 경우는 임금도 신하도 없으니까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용 자체도 오늘날에 맞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할 것 같아요. 가령 夫婦有別(부부유별)의 경우는 남녀 차별이라고 할 것이고, 長幼有序(장유유서)의 경우는 어린이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 같네요.

지금 세상은 조선시대와 달리 많이 변했어요. 옛날의 도리를 모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다 쓸모없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 더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어요. 가령 父子有親(부자유친)과 朋友有信(붕우유신)은 더 잘 지켜야 할 것 같네요.

사실 長幼有序(장유유서)의 경우도 어린이가 할아버지처럼 나이 드신 분보다 먼저 식사를 하겠다고 하면 예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도 오늘날처럼 어린이를 배려해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서 때에 맞게 적용해야 돼요.

오륜이란 알고 보면 약자에게 무조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는 도리에요. 시대에 맞게 그 정신을 살려서 지킨다면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소개할 내용은 이 오륜을 자세히 푼 것이에요.

생각해 볼 문제

1.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 다섯 종류의 사람을 말해 보세요.

① ..... ② .....

③ ..... ④ .....

⑤ .....

2. 앞에서 내가 말한 다섯 종류의 사람과 나 사이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도리(윤리)가 있다면 아래 〈보기〉에서 골라 표현해보자.

〈보기〉	우정	사랑	믿음	정직	배려	존중	예절	소통
	책임	협동	의리	차례	친함	분별	정의	기타( )

① 나와 부모님 사이에는 ( )이(가) 있어야 한다.

② 나와 ( ) 사이에는 ( )이(가) 있어야 한다.

③ 나와 ( ) 사이에는 ( )이(가) 있어야 한다.

④ 나와 ( ) 사이에는 ( )이(가) 있어야 한다.

⑤ 나와 ( ) 사이에는 ( )이(가) 있어야 한다.

3. 앞의 글에서 사람이 귀한 이유는 사람에게 도리(윤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만약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만약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 사람이 가장 귀한 까닭 :

나. 사람이 가장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

4. 長幼有序(장유유서)가 오늘날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까닭을 써 보세요.

그 이유 :

한자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아비	아들	어른, 길	어릴	벗	있을
한자	父	子	長	幼	友	有
음	부	자	장	유	우	유

2. 다음 뜻풀이에 맞는 한자에 해당하는 음을 □안에 쓰시오.

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 : 父母(□모)

나. 친구 사이의 정을 일컫는 말 : 友情(□정)

다. 학교를 책임진 어른 : 校長(교□)

라. 길고 짧음을 나타낸 말 : 長短(□단)

3. 다음 오륜의 음을 □안에 써 보시오.

父子有親(□□□친)　夫婦有別(부부□별)

長幼有序(□□□서)　朋友有信(붕□□신)

4. 다음 오륜의 뜻에 해당하는 것을 줄로 이어 보시오.

(1) 長幼有序(장유유서) ● ● 부모와 자식사이에는 친함이 있다

(2) 朋友有信(붕우유신) ● ●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다

(3) 父子有親(부자유친) ● ●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다

5. 다음 □안에 알맞은 한자를 써 넣어 보세요.

가. 나는 우리 부모님의 □女(자녀)입니다.

나. 그것은 나의 所□(소유)가 아닙니다.

관련된 이야기

급암과 한무제

『소학』에 나오는 이야기에요.

중국 전한 때 급암이라는 바른 말 잘 하기로 이름 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황제인 무제가 즉위하자 말자 주작도위라는 벼슬을 내렸는데, 자주 바른 말을 하여 그 자리에 오래 있지 못했어요. 무제에게 잘못이 있으면 목숨 따위를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고치라고 말하였기 때문이지요.

주변의 관리들은 이런 급암이 무제를 화나게 만들어 벌을 받을까봐 몹시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나 무제는 이런 급암이 싫어서 불평을 터뜨려도 그에게 벌을 내리지는 않았지요.

언젠가 대장군 위청이 무제를 뵐 때는 무제가 평상에 걸터앉아서 만나기도 하고, 승상 공손홍이 한가롭게 뵐 때는 관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 무제도 유독 급암을 볼 때만은 관을 쓰지 않고는 만나지 않았어요. 황제가 관을 쓰지 않고 신하를 만나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어서, 그 일 때문에 급암으로부터 바른 말을 듣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무제가 부대의 막사에서 관을 쓰지 않고 앉아 있다가 급암이 나타나자, 후다닥 휘장 안으로 몸을 피하고 사람을 시켜 급암이 하는 말이 옳다고 전했다고 해요.

나라를 크게 확장시킬 정도로 용맹을 지녔던 한나라 무제도 바른 말을 하는 신하를 예로써 대하는 것이 이와 같았어요.

어때요? 신하가 임금의 말에 무조건 찬성하거나 아첨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가 아닌 거예요. 임금 또한 신하에게 복종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이 옳지 않다면 임금이 명령을 내려서도 안 되고, 신하 또한 그것이 옳다고 여겨 명령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오로지 義(의) 곧 정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君臣有義(군신유의)랍니다.

그러니 옛날에는 급암 같은 신하들이 많았어요. 옛날이라고 해서 임금의 명령에 무작정 따랐던 것은 아니지요.

관련 인성 가치	존중 배려 정직

둘째 마당

행복한 가정

1. 가족과 나
2. 부모님과 나
3. 형제와 나
4. 남편과 아내
5. 효도의 방법
6. 내가 집안의 어른이라면
7. 내 자식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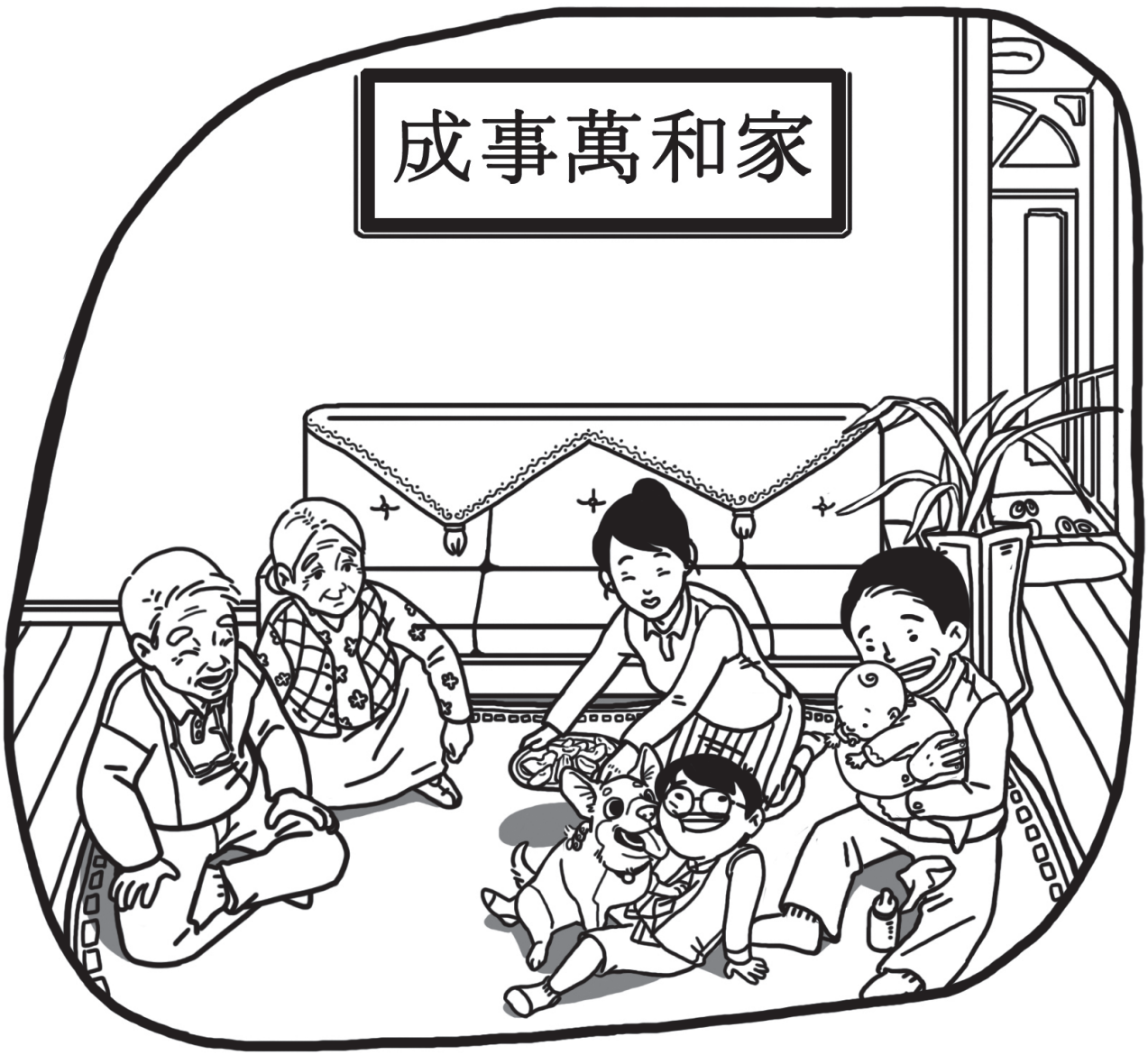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 말을 '가정이 화목하면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바꿀 수 있겠네요. 학생으로서 공부를 할 때도, 장차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갔을 때에도 가정이 행복해야 큰일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해요.

가정의 행복과 불행이 모든 일이 잘되고 못되는 것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아요.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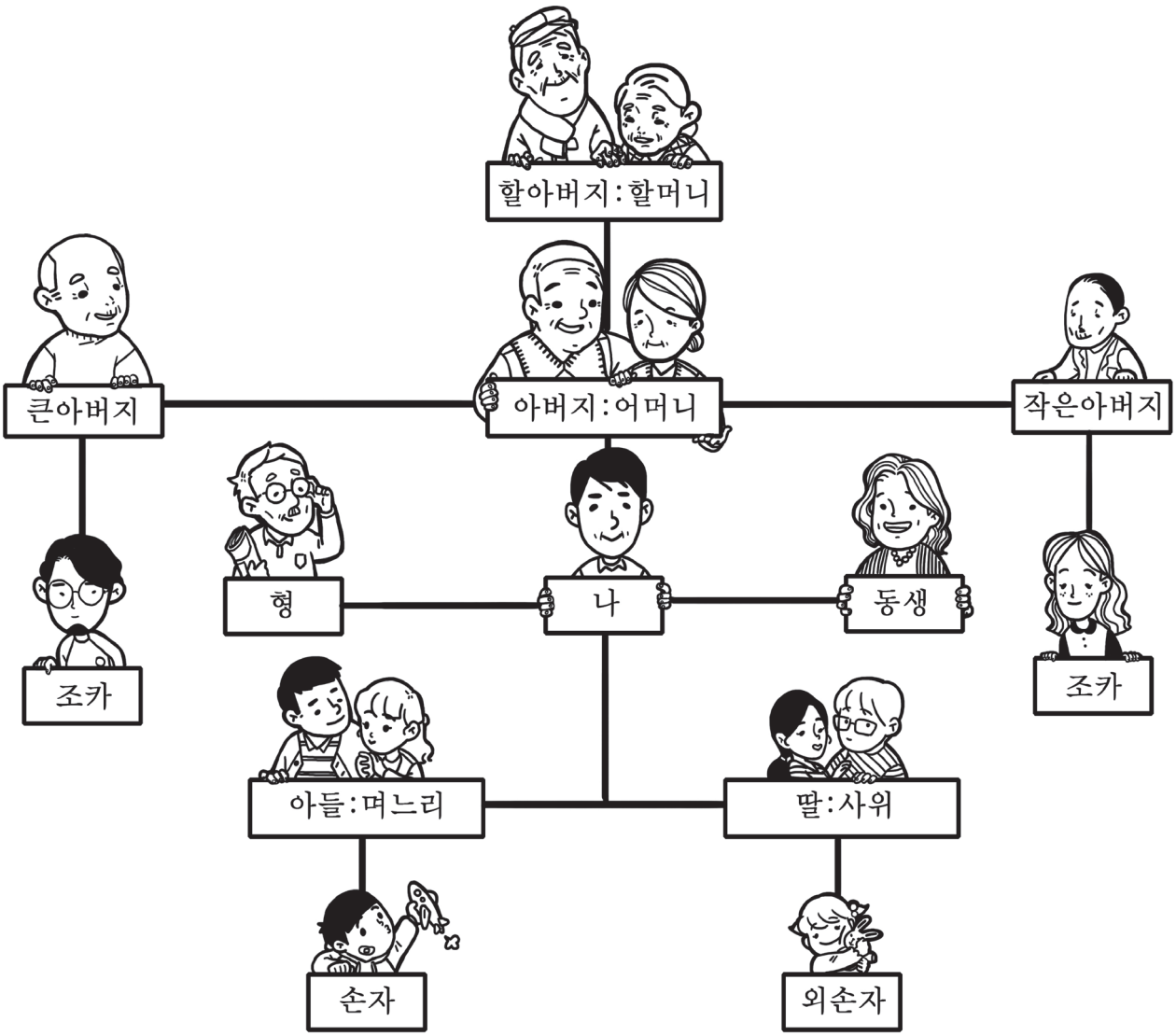


1. 가족과 나

나를 낳은 사람은 父母(부모)가 되고
내가 낳은 사람은 子女(자녀)가 되는 것이요
아버지의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되고
아들의 아들은 孫子(손자)가 된다.
나와 같은 부모를 가진 사람은 兄弟(형제)가 되고
부모의 형제는 아저씨*가 되며
兄弟(형제)의 子女(자녀)는 조카가 되고
아들의 아내는 며느리가 되며
딸의 남편은 사위가 된다. (『계몽편』「인편」)

*아저씨 : 여기서 말하는 아저씨는 큰 아버지나 작은 아버지를 가리킨다.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본문 해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父母(부모)와 조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일은 결코 없지요. 혹 子孫(자손)이 없을 수는 있어도 父母(부모)나 조상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조상으로부터 말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의 父母(부모)들은 子女(자녀)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兄弟(형제)와 姉妹(자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족 관계가 복잡하고 호칭도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되었지요. 요즘은 子女(자녀)를 적게 낳기 때문에 그 호칭이 점점 필요 없는 것이 되고 있지요. 그러나 당분간은 쓰일 거예요.

그러면 앞의 본문에 나오는 것과 아울러 거기에 소개하지 않은 호칭까지 말해 보겠어요.

- 父母(부모) : 나를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
- 子女(자녀) : 내가 낳은 사람
- 할아버지 : 아버지의 아버지 ● 외할아버지 : 어머니의 아버지
- 할머니 : 아버지의 어머니 ● 외할머니 : 어머니의 어머니
- 孫子(손자) : 아들의 아들 ● 外孫子(외손자) : 딸의 아들
- 孫女(손녀) : 아들의 딸 ● 外孫女(외손녀) : 딸의 딸
- 큰아버지 : 아버지의 형님 ● 외삼촌 : 어머니의 오빠나 남동생
- 작은아버지 또는 삼촌 : 아버지의 남동생
- 兄弟(형제) : 나와 같은 부모를 가진 남자
- 자매 : 나와 같은 부모를 가진 여자
- 고모 : 아버지의 누이 ● 고모부 : 아버지 누이의 남편
- 이모 : 어머니의 자매 ● 이모부 : 어머니 자매의 남편
- 조카 : 형제의 자녀
- 며느리 : 아들의 아내 ● 사위 : 딸의 남편

생각해 볼 문제

1. 앞의 글을 참고하여 ( ) 속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보시오.

〈보기〉 부부 오륜 혼인 부모 제사

가. 부부가 있어야 부모와 자식이 있게 되니, ( )는 사람 도리의 시초이다.
그래서 聖人(성인)이 ( )하는 예를 만들어 중요하게 여겼다.

나. 사람은 ( )가 없으면 태어날 수 없다.

2. 다음 〈보기〉는 나를 기준으로 나타낸 이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조카, 손자, 사위, 아들, 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며느리, 딸, 형, 동생

가. 나의 윗사람을 모두 골라 보시오 :

나. 나의 아랫사람을 모두 골라 보시오 :

3.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가 여자라면 나의 손자는 나를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요? ( )

나. 내가 결혼한 여자라면 여동생의 아들인 조카는 나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 )

다. 내가 결혼하지 않은 남자라면 형의 아들은 나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 )

4. 관계되는 것끼리 줄로 이으시오.

(1) 고모 ● ● 어머니의 형제

(2) 이모 ● ● 아버지의 자매

(3) 외삼촌 ● ● 어머니의 자매

한자·한문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어미	할아비	여자	손자	형	아우	사내
한자	母	祖	女	孫	兄	弟	男
음	모	조	녀(여)	손	형	제	남

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한자어의 음을 쓰시오.

가. 母女(　　): 어머니와 딸

나. 兄弟(　　) : 같은 부모로부터 내어난 사람들

다. 孫女(　　) : 아들의 딸을 일컫는 말

라. 祖孫(　　) : 할아버지와 손자

3. 다음 한자어에 해당하는 뜻을 쓰시오.

가. 祖父(조부) :

나. 祖母(조모) :

다. 父女(부녀) :

4. 다음 글을 읽고 (　) 속에 해당되는 한자의 음을 써 보시오.

> 즐거운 설날입니다.
> 서로 떨어져 있던 父母兄弟(　　)가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 차례를 지낸 후에 祖父(　　)님과 祖母(　　)님께 세배를 드린 후,
> 孫子(　　)와 孫女(　　)들의 재롱을 보고 모두 웃었습니다.

5. 다음 □속에 한자의 음을 써 넣고, 큰 소리로 여러 번 읽어 보시오.

生我者(생아자)는 爲父母(위□□)라 : 나를 낳은 사람은 부모가 된다.

지붕에 올라가는 송아지

옛날 어느 마을에 김 진사와 이 진사가 살았어요. 그런데 김 진사는 하는 일마다 일이 잘 풀리고 살림도 점점 늘어났어요. 그러나 이 진사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살림이 점점 줄어들었지요. 김 진사 집에는 날마다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데, 이 진사 집에서는 날마다 다투는 소리만 끊이지 않았지요.

하루는 이 진사가 김 진사를 찾아 왔어요. 그리고는 집안이 잘 되는 비결이 뭔지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김 진사가 말했어요.

"당장 가서 자네 아들더러 송아지를 끌고 지붕에 올라가라고 해 보게."

이렇게 말하자, 이 진사는 집에 가서 아들에게 송아지를 지붕에 끌고 올라 가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아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다 시킨다고 짜증을 내며 이 진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참다못한 이 진사는 다시 김 진사 집으로 와서 그 사실을 말했어요. 그러자 김 진사는 자기 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어서 송아지를 끌고 지붕위에 올라가거라."

이렇게 말하자마자 아들은 군말 없이 지붕에 사다리를 걸치고 송아지를 위로 끌어 올렸어요. 일이 잘 안 되자 도와달라고 자기 아내를 불렀죠.

"여보, 어서 와서 송아지 궁둥이 좀 받쳐줘요."

그러자 며느리가 나와서 엉덩이를 밀고 야단이에요. 孫子들도 우르르 나와서 밀어라 당겨라 하며 애를 썼어요.

이때 김 진사가 말했어요.

"됐다. 안 올라가거든 그만 두어라."

그리고는 이 진사를 보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이게 집안이 잘되는 비결일세. 가족들이 서로 믿고 힘을 합쳐야 무슨 일이든 잘 된다네."

관련 인성 가치	협동 배려

2. 부모님과 나

父母와 자식은 날 때부터 서로 親(친)한 사이이다.
父母는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사랑하여 가르치며
자식은 父母를 받들어 子孫(자손)을 이어가며
孝道(효도)하고 奉養(봉양)*한다.
그러므로 父母는 자식을 옳은 방법으로 가르쳐 나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한다. 혹시 父母에게 잘못이 있으면 자식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고치도록 말씀드려서 마을이나 고장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동몽선습』「부자유친」)

*奉養(봉양) : 어른을 받들어 모심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시고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키워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봉양하고

나는 부모님께 뜻을 받들어 이어가고

부모님의 잘못을 말씀 드린다

본문 해설

요즘 어린이들이나 젊은이들에게 孝道(효도)하라는 말을 꺼내면 시큰둥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마도 어린이들이나 젊은이들에게는 孝道(효도)를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父母와 자식은 사랑하는 사이에요. 가령 자식이 어릴 때 옷에 싼 똥도 더럽다고 여기지 않고 닦아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대신 자식이 父母를 사랑하는 것을 孝道(효도)라고 부를 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어린이들이나 젊은이들은 누구나 공정한 것을 좋아해요. 가령 나는 친구에게 먹을 것을 자주 사 주었는데, 친구는 돈이 있으면서도 내게 한 번도 먹을 것을 사주지 않는다면, 아마도 열에 아홉은 그 친구를 멀리 할 거예요. 바로 공정하지 못한 친구 관계 때문이지요.

사실이지 孝道(효도)에도 이런 공정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父母는 자식을 키워주고 사랑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잘 가르쳐야 해요. 그러면 자식 또한 부모에게 孝道(효도)하는 것이 공평한 일이지요. 안타깝게도 효도를 안 하는 자식들도 많은 것이 요즘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孝道(효도)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물론 그렇지 않아요.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아주 오래된 옛날, 순(舜)이라는 사람에게는 아주 못된 아버지와 계모가 있었지요. 얼마나 못되었는지 순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래도 순은 정성스럽게 父母님을 잘 모셨어요. 이런 소문이 퍼져 훗날 그의 인품에 감동한 요(堯)임금이 그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었죠. 그가 바로 순임금이랍니다. 대신 순의 父母는 천하의 나쁜 父母로 역사에 그 이름이 남았죠.

이렇게 孝道(효도)는 바른 人間이 되는 기준이 된다고나 할까요? 옛 사람들은 그렇게 봤어요. 孝道(효도)할 줄 모르면 사람취급을 안한 거죠. 이렇게 孝道(효도)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그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해요.

생각해 볼 문제

1. 부모님이 나를 위해 해 주신 일을 세 가지만 적어 보세요.

   (1)

   (2)

   (3)

2. 내가 부모님을 위해 한 일이 있으면 세 가지만 적어 보세요.

   (1)

   (2)

   (3)

3. 옛날에는 부모님에게 혹시 잘못한 일이 있으면 부드러운 목소리로 고치도록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드려야 할까요?

4. 옛날 사람들은 부모님의 뜻(희망)이나 가르침을 받들어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5.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잘 키우지도 보살펴주지도 않았다면, 여러분은 커서 부모님을 잘 모실 생각이 있나요? 그 이유도 말해 보세요.

한자·한문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효도	길	친할	사랑	가르칠	날
한자	孝	道	親	愛	敎	生
음	효	도	친	애	교	생

2. 한자어의 음과 뜻을 알아봅시다. ( ) 속에 알맞은 음을 써 보세요.

가. 孝道( ) : 집안의 웃어른을 잘 받들어 모심

나. 親愛( ) : 가까이 사랑하거나 친밀감을 가지고 소중히 여김

3. 다음 □안에 해당하는 한자의 음을 쓰시오.

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른 길 : 道理(□리)

나. 가르치고 기르는 일 : 敎育(□육)

다. 태어난 날 : 生日(□□)

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일컫는 말 : 兩親(양□)

4. 다음 한자의 음과 뜻을 써 보시오.

한자	음	뜻
父子有親		

5. 다음 □ 속에 한자의 음을 써 넣고, 큰 소리로 여러 번 읽어 보시오.

父子(□□)는 天性之親(□성지□)이라 : 부모와 자식은 타고난 천성이 친하다.

설포의 孝道

『소학』에 나오는 이야기에요.

옛날 중국 후한 때 薛包(설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학문을 좋아했어요.

어머니가 죽자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들였는데, 아버지는 설포를 미워해서 분가(가족이 살림을 차려 따로 나가 사는 것)시켜 내보냈어요. 설포가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차마 가지 못하다가 아버지가 매로 때리자, 마지못해 집 밖에 초막(풀이나 짚으로 지붕을 만든 임시로 만든 집)을 짓고 살았어요.

아침에 집안으로 들어가 마당에 물 뿌리고 청소하니 아버지가 화를 내며 또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을 입구에 초막을 짓고 살면서, 이른 새벽과 밤이 되면 와서 아버지께 문안을 올렸어요. 한 해가 지나가 父母는 자신들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겨 설포를 집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 뒤 父母가 죽자 설포는 너무나 슬퍼했어요.

얼마 뒤 동생의 아들 곧 조카가 재산을 나누어 따로 살기를 원하므로 설포는 말리지 못하고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었는데, 좋은 것은 조카에게 다 주고 자기는 나쁜 것만 가졌어요.

그 조카는 여러 번 재산을 없앴는데, 그 때마다 다시 도와주었어요.

설포의 경우처럼 아버지가 자신을 미워해도 孝道를 다 한 사례는 드문 일이에요. 앞에 잠시 소개한 순임금도 그랬어요. 요즘 같으면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에요. 물론 옛날에도 흔하지 않은 일이니까 『소학』에 실렸겠죠. 자식이 나쁜 짓을 안 한다면 자식을 미워하는 아버지는 거의 없어요. 『소학』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孝道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네요. 이러면 孝道는 부모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인 줄도 몰라요. 효도가 올바른 인간이 되는 길 가운데 하나라고나 할까요?

관련 인성 가치	효도

3. 형제와 나

兄弟는 父母님이 물려주신 몸을 함께 받았으니 한 몸이나 마찬가지이다.

兄弟를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여기지 말고, 飮食(음식)과 衣服(의복)이 있든 없든 모두 함께 나누어야 한다. 가령 兄은 굶주리는데 동생은 배부르고, 동생은 옷이 없어 추워서 떠는데 兄은 따뜻한 옷을 입는다면, 이것은 한 사람의 몸 가운데 어떤 팔다리는 병들고 어떤 팔다리는 건강한 것과 같다. 그러니 몸과 마음이 어찌 한쪽만 편안할 수 있겠는가?

지금 사람들이 兄弟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두 父母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父母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그 父母의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약 兄弟가 좋지 못한 행동을 하면, 마땅히 정성스럽게 충고하고 점차 올바른 이치를 가지고 가르쳐서 스스로 감동하여 깨닫기를 기다려야지, 급하게 화난 얼굴과 마음에 거슬리는 말을 하여 兄弟 사이의 화목한 관계를 잃게 해서는 안 된다. (『격몽요결』 「거가장」)

*그 부모의 자식 : 형제를 가리킴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본문 해설

兄弟끼리 다투어 본 경험이 있나요? 어릴 때는 대개 장난감이나 먹는 것을 두고 다투다가도 금방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냅니다. 또 다투면 父母님이 혼내시니까 父母의 눈치를 보면서 싸움을 끝내기도 하지요.

문제는 혼인을 한 뒤 어른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父母님이 늙거나 돌아가시면 父母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싸우는 兄弟들이 꽤 있답니다. 먼 옛날에는 왕의 자리를 두고 兄弟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일은 흔했고, 요즘도 父母님이 물려준 큰 회사를 두고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兄弟들이 신문이나 방송에 자주 등장하지요.

그렇다면 兄弟끼리 왜 이렇게 다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부모가 물려준 유산을 놓고 공평하게 나누지 않고 많이 차지하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 재산 욕심 때문에 싸운다고 할 수 있지요. 욕심 없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父母가 평소에 특별한 자식만 사랑했거나 차별했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兄弟들의 배우자인 아내나 남편이 집안의 일에 협조하지 않아 싸우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兄弟간의 싸움은 옛날에도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이야기인 '흥부놀부'나 '의좋은 兄弟' 같은 이야기도 널리 퍼져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 兄弟끼리 잘 지내도록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兄弟들끼리 다투면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마음은 항상 불편하고 그래서 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해요. 게다가 남들의 시선도 두려워서 사회생활을 떳떳하게 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兄弟끼리 잘 지내는 것도 孝道 가운데 하나라고 보았어요. 모두 父母님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父母님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지요. 兄弟끼리 다투지 마세요.

생각해 볼 문제

1. 다음의 설명에 맞는 용어를 〈보기〉에서 골라 적어 보세요.

〈보기〉 오누이 형제 자매 남매 형제자매

가. 오빠와 누이동생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나. 언니와 여동생 사이를 가리키는 말 :

다. 한 부모가 낳은 남녀 자식들을 아울러 이르는 말 :

2. 우리 부모님과 나에게는 몇 명의 형제자매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그 수를 빈칸에 써 넣으시오.

형제자매	형 또는 오빠	남동생	누나 또는 언니	여동생
아버지				
어머니				
나				

3. 내가 형제자매에게 잘 해준 경험이 있으면 써 보세요.

가. 대상(누구) :

나. 언제 :

다. 무엇을 :

4. 내가 형이나 누나 또는 동생과 잘 지낼 수 있는 일을 찾아 적어 보세요.

대상	잘 지낼 수 있는 일
형	
누나	
동생	
오빠	

한자·한문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나	몸	마음	마실	먹을	옷	옷
한자	我	身	心	飮	食	衣	服
음	아	신	심	음	식	의	복

2. 한자어의 음과 뜻을 알아봅시다. ( ) 속에 알맞은 음을 써 보세요.

가. 心身( ) : 마음과 몸

나. 飮食( ) : 마실 것과 먹을 것

다. 衣服( ) : 옷의 다른 말

3. 서로 관계되는 낱말과 한자를 줄로 이으시오.

(1) 身 ● ● 바지

(2) 飮 ● ● 음료수

(3) 衣 ● ● 팔다리

4. 다음 □ 속에 한자의 음을 써 넣고, 큰 소리로 여러 번 읽어 보시오.

가. 兄友弟恭(□□□공)하라 : 형은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하라.

나. 兄弟(□□)는 同受父母遺體(동수□□유체)하니 與我如一身(여□여□□)이라 : 兄弟는 父母님이 물려주신 몸을 함께 받았으니 나와 한 몸이나 마찬가지이다.

三兄弟

옛날에 부모가 일찍 죽고 三兄弟만 살았는데, 너무 가난하여 농사지을 땅도 없고, 山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아도 먹고 살기가 힘들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三兄弟에게는 제각기 재주가 있었어요. 큰 兄은 눈이 좋아 아무리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었고, 둘째는 힘이 세서 어떤 무거운 짐도 옮길 수 있었죠. 셋째는 아무리 때려도 다치거나 아프지 않는 몸을 지니고 있었어요.

하루는 山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 털썩 주저앉아 쉬고 있을 때, 큰 兄이 저 멀리 마을을 보니 원님이 있는 관아(관청)의 창고에 쌀이 가득했어요. 三兄弟는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해 그걸 훔치기로 했지요.

밤이 되자 三兄弟는 몰래 관청의 창고 앞에 갔어요. 둘째가 창고 문을 부수고 쌀을 짊어지고 돌아와 맛있게 밥을 지어 배부르게 먹었어요.

한편 쌀을 잃어버린 원님은 포졸들을 시켜 쌀 도둑을 찾게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훔친 일이 들통 나서 三兄弟가 붙잡혀 원님 앞으로 끌려왔어요. 이 때는 도둑질을 하면 매(곤장)를 百 대나 맞아야 했어요.

셋째는 그 매를 자기가 맞아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원님에게 쌀을 자기가 훔쳤다고 거짓으로 자백했어요. 그리고 두 兄을 보내 달라고 했지요. 원님은 비록 도둑이지만 兄弟 사이 友愛(兄弟 사이의 사랑)가 깊다고 생각하고 그리하라고 했어요. 셋째는 볼기를 맞았는데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도 않았고 상처도 나지 않았어요. 때린 사람만 힘들고 피곤했지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옛날 배고프게 살았던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에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관청의 쌀을 훔친다는 생각을 했겠어요? 아마도 옛날에 못된 원님들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신 쌀을 훔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홍길동전 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三兄弟는 배가 고파 비록 도둑질을 했지만 서로 위해주고 지켜주는 사랑이 컸네요. 형제의 우애만큼은 배웠으면 좋겠어요.

관련 인성 가치	배려

4. 남편과 아내

남편은 溫和(온화)*하면서 의롭게 아내를 대하고, 아내는 柔順(유순)*하면서 올바르게 남편을 받들어야 한다. 이렇게 夫婦(부부) 사이에 예의와 恭敬(공경)*을 잃어버리지 않은 뒤에야 집안일을 다스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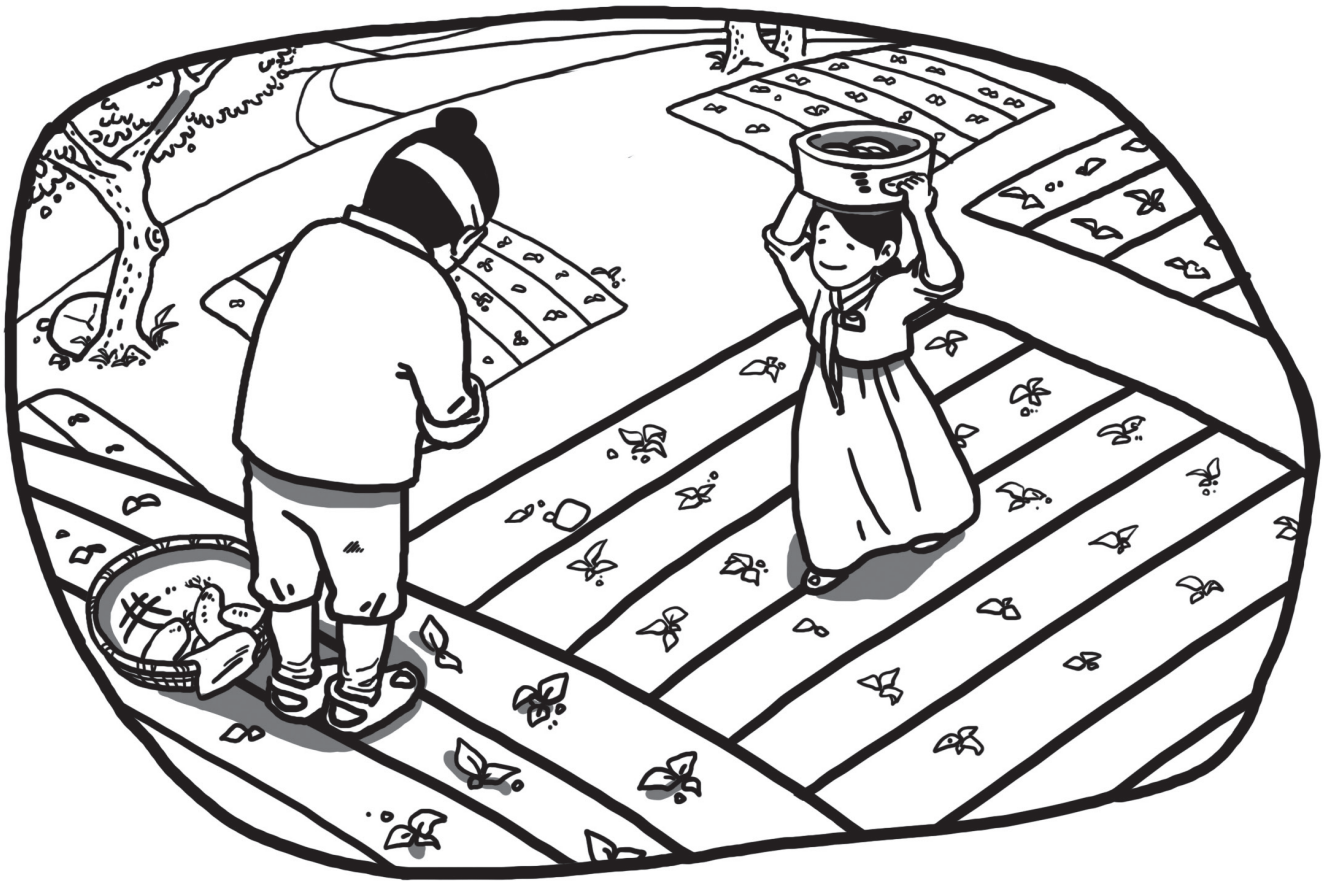
만약에 夫婦(부부)가 평소에 서로 거리낌이 없이 너무 가까이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서로 恭敬(공경)하고자 하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서로 조심하여 반드시 평소의 좋지 못한 습관을 버리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내가 만약 남편의 말과 행동이 정의로운 것을 본다면, 반드시 점점 믿고 순순히 따를 것이다. (『격몽요결』「거가장」)

옛날에 郤缺(극결)*이 밭에서 김을 매자 그 아내가 점심밥을 가지고 왔는데, 恭敬(공경)하여 서로 대하기를 손님처럼 하였으니, 夫婦(부부)간의 道理(도리)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동몽선습』「부부유별」)

*溫和(온화) : 마음씨가 따뜻하고 인자함　*柔順(유순) : 마음씨가 부드럽고 온순함
*恭敬(공경) : 조심해서 공손히 섬김　*郤缺(극결) : 춘추전국시대 晉(진)나라의 대부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본문 해설

앞의 본문에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예절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직 혼인할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夫婦(부부) 사이의 도리에 대하여 관심 자체가 없어서 알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대개 男子(남자)와 女子가 연애할 때는 서로 사랑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도 결혼하고 나면, 그것도 자식을 낳고 세월이 흐르면 그렇게 좋아하던 감정이 사라지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서로 함부로 대하다가 싸워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夫婦(부부)의 도리를 알아야 하는데, 남편은 따뜻하고 인자하면서도 正義(정의)롭게 아내를 대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부드럽게 대하면서 따르라고 했어요. 물론 오늘날은 아내가 남편을 무조건 따르는 일은 없겠죠? 남편과 아내 모두 상황에 따라 따뜻하게 부드럽게 正義(정의)롭게 하되 때로는 상대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따를 때도 있어야 해요. 집안일도 두 사람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옛날이라고 해서 서로 존중해 주는 게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는 마치 손님이 된 것처럼 서로 공경하라고 했어요. 공경이란 조심해서 상대를 공손히 섬기라는 뜻이에요. 곧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태도이지요.

그런데 말이죠. 참고로 하나 알아 둘 일이 있어요. 옛날 남편은 집안일에 대해서 절대로 간섭하지 않았어요. 집안일은 안주인인 아내가 도맡아 했지요. 물론 생활하는 공간도 아내는 안채에 머무르고 남편은 바깥사랑채에서 생활했죠. 당연히 남편은 집 바깥의 일에만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夫婦(부부)의 역할을 안팎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지금도 夫婦(부부)의 다른 이름을 內外(내외)로 부르기도 해요. 오늘날은 굳이 그걸 지킬 필요는 없다고 봐요.

생각해 볼 문제

1. 앞의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말일까요? 아래의 □ 안에 알맞은 글자를 써 넣으세요.

   부부는 서로 □□ 하여야 한다.

2. 남편과 아내가 가져야 할 성격과 태도를 요약해 빈칸에 써 넣으시오.

구분	남편	아내
성격		
태도		

3. 앞의 글에서 왜 부부가 평소에 서로 거리낌이 없이 너무 가까이 지내서는 안 된다고 했을까요? 부부가 손님처럼 공경해야 한다는 말을 근거로 생각해 보아요.

4. '아내가 남편을 따른다'는 것이 오늘날의 입장에서 '남편도 아내를 따라야 한다' 로도 바꾸어 말할 수 없는지 비판해 보세요. 아내나 남편이 따를 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5. 여러분은 장차 어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각각 여러분에게 어떤 성격과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빈칸에 써 보세요.

구분	성격 또는 태도
남편	
아내	

한자·한문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지아비	며느리	화할	순할	옳을	바를	예도
한자	夫	婦	和	順	義	正	禮
음	부	부	화	순	의	정	예(례)

2. 한자어의 음과 뜻을 알아봅시다. ( ) 속에 알맞은 음을 써 보세요.

가. 夫婦( ) : 남편과 아내

나. 正義( ) : 올바른 도리

다. 和順( ) : 성격이 온화하고 순함

3. 다음 □안에 해당하는 한자의 음을 쓰시오.

가. 결혼한 여자 : 婦人(□□)

나. 남의 아내를 높여서 부르는 말 : 夫人(□□)

다. 예의에 관한 질서나 절차 : 禮節(□절)

라. 마음씨가 부드럽고 온순함 : 柔順(유□)

4. 다음 □ 속에 한자의 음을 써 넣고, 큰 소리로 여러 번 읽어 보시오.

가. 夫道和義(□□□□)요 婦德柔順(□덕□□)이니라 : 남편의 도리는 온화하고 의로우며 아내의 덕은 부드럽고 온순한 것이니라.

나. 內外有別(내외□별)이니 相敬如賓(상경여빈)하라 : 내외(부부)에는 분별이 있으니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처럼 하라.

5. 다음 고사성어의 음을 써 보시오.

夫唱婦隨( ) :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이에 따름. 가정에서 부부의 화합을 가리키는 말.

포선의 아내 소군

『소학』에 나오는 옛이야기에요.

중국 한나라 때 포선이라는 사람의 아내 환씨의 이름은 소군이에요. 포선은 일찍이 소군의 아버지로부터 글을 배웠는데, 소군의 아버지가 포선의 사람됨을 높이 보고 그의 딸을 포선에게 시집을 보내며 사위를 삼았어요.

포선이 아내를 데리고 돌아오는데, 아내는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또 함께 가져가는 재물이 무척 많았어요. 그것을 본 포선이 기뻐하지 않고 말했어요.

"당신은 부유하고 교만하게 자라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익혔지만, 나는 가난하고 미천하여 그와 같은 예절을 감당할 수 없소."

라고 하자, 아내가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선생(포선을 말함)이 덕을 닦고 검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로 하여금 모시게 한 것입니다. 이미 군자(포선을 높여서 하는 말)를 받들기로 했으니, 오로지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포선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뜻이오."

아내는 하인과 의복과 장식품을 모두 돌려보내고, 베(삼이나 무명 등으로 짠 옷감)로 만든 짧은 치마로 갈아입고 포선과 함께 작은 수레를 끌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께 절하는 禮를 마치고, 물동이를 들고 나가서 물을 길어 오며 아내의 道理(도리)를 잘 행하니, 온 마을과 고을 사람들이 칭찬하였어요. 아내의 친정이 아무리 잘 살아도 교만하지 않고 아내의 道理(도리)를 다해 남편의 뜻을 잘 따랐다는 이야기에요.

이야기처럼 옛날의 남편과 아내는 아무래도 남편이 중심이 되고 아내가 따르는 입장이었지만, 오늘날은 남녀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시대이므로,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해요. 물론 서로 공경하는 자세를 갖는 것도 필요하지요.

관련 인성 가치	존중 배려

5. 효도의 방법

父母를 섬기는 자는 작은 일이라도 감히 제 맘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父母에게 여쭈어 보고 해야 한다. 만약 父母가 허락하지 않으면 자세히 말씀드려 허락한 뒤에 하며, 끝내 허락하지 않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父母가 계신 곳에 가서 문안을 여쭙고, 저녁이 되면 따뜻한지 서늘한지 여쭙고 이부자리를 정해드린다.

낮 동안 온화한 표정을 짓고 용모를 공손히 하며 정성을 다해 奉養(봉양)*하고, 멀리 집밖으로 나가고 돌아올 때에는 반드시 절하고 아뢰어야 한다.

父母와 자식 사이에 대부분 사랑이 恭敬(공경)*보다 지나치니, 그런 습관을 고쳐 자식은 尊敬(존경)을 극진히 하여야 한다. 父母가 앉고 누우시는 곳에서는 자식이 감히 앉고 눕지 않는다.

父母에게 병이 생기면 마음으로 근심하며 만사를 제쳐두고 의원에게 묻고 약을 짓는 일에 힘써야 하니, 병이 나으면 다시 평소의 일을 한다.

父母의 생각이 道理(도리)에 맞지 않으면 표정을 온화하게 하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고치도록 말씀드리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반복해서 말씀드려 고치도록 해야 한다. (『격몽요결』「사친장」)

*奉養(봉양) : 받들어 모심
*恭敬(공경) : 조심해서 공손히 섬김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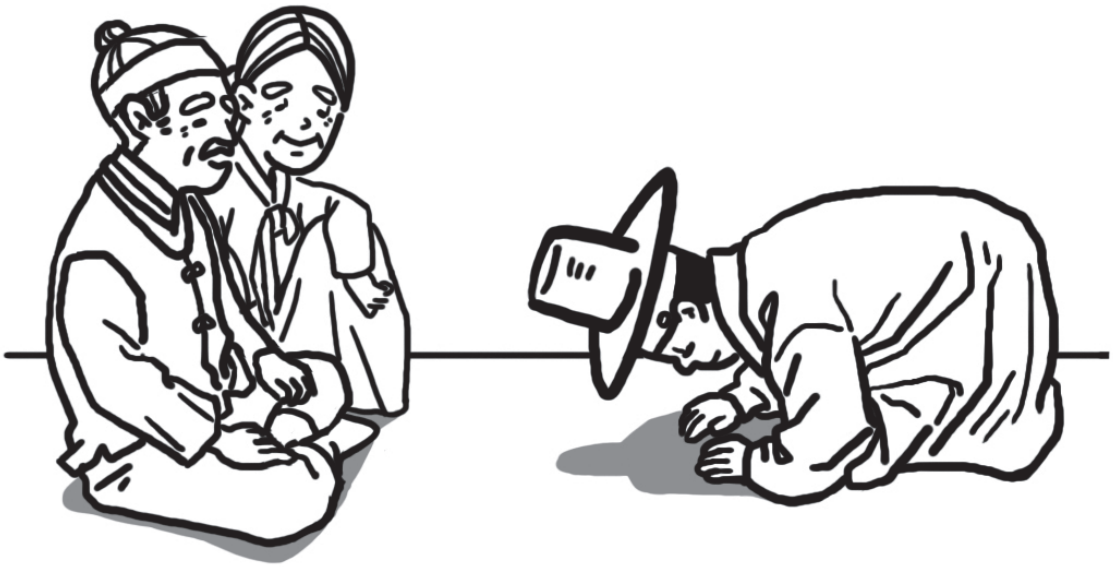
효자의 효도

이른 아침에

저녁에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멀리 떠나거나 돌아왔을 때



병이 들었을 때

본문 해설

앞의 본문은 옛날의 孝道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얼핏 보아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네요. 사실 이 문제는 오해에서 비롯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는 孝道하는 사람의 나이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말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父母의 생각이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을 고치도록 말씀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또 父母님을 봉양(받들어 모심)하면서 이부자리를 돌봐드리는 것도 그런데, 이것은 훗날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나이와 형편에 맞는 孝道를 말해보려고 해요. 우선 제 맘대로 하지 말고 父母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해당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같은 미성년자들은 판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돈이 들거나 위험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父母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요.

또 아침과 저녁으로 父母님께 문안 올리는 것도 필요하구요. 더구나 외출하거나 돌아 왔을 때 인사하는 것을 빠뜨려서는 안 돼요. 비록 옛날처럼 큰 절을 할 필요는 없지만, 공손하게 인사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본문에는 말하지 않았지만, 형제끼리 싸우지 않고 잘 지낸다든가 위험한 곳에서 놀지 않는다든가, 집을 나가 어디를 갈 때 반드시 가는 장소를 알리는 것 등도 孝道하는 길이에요. 게다가 큰 병이 들었을 때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걱정하고 위로하는 일은 필요해요. 그러니 작은 감기 정도는 여러분이 집안일을 도와 父母님이 쉬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정도 나이, 가령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면서 父母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사춘기에 접어들어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는 되지만, 父母님께 퉁명스럽게 대하고 함부로 짜증부리며 말도 안하는 친구들이 더러 있어요. 이럴 때는 父母님께 공손하게 대하는 것만도 孝道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볼 문제

1. 다음은 옛날의 효자가 하루 동안 부모님을 잘 모시는 방법을 적은 것이에요. 앞의 글을 참고로 빈 칸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

이른 아침	낮	저녁
	잘 봉양한다.	

2. 부모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 여러분은 허락을 받기위해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보시오. ( )

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 드린다.

②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

③ 삐쳐서 말도 안한다.

④ 웃으며 부모님 비위를 맞춘다.

⑤ 기타( )

3. 오늘날도 "멀리 집밖으로 나가고 돌아올 때에는 반드시 절하고 아뢰어야 한다."는 것을 실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하는 인사말을 써 보세요.

가. 학교에 갈 때 :

나. 공부 끝나고 돌아 왔을 때 :

4. "부모가 앉고 누우시는 곳에서는 자식이 감히 앉고 눕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날 부모님이 쓰시는 침대에 앉거나 눕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를 골라 보세요. ( )

① 부모님이 마음속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② 부모님의 물건이 더러워지므로

③ 부모님을 높이고 공경하는 뜻에서

④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한자·한문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기를	공경할	일, 섬길	어버이	날	들
한자	養	敬	事	親	出	入
음	양	경	사	친	출	입

2. 한자어의 음과 뜻을 알아봅시다. ( ) 속에 알맞은 음을 써 보세요.

가. 養親( ) : 부모를 모시어 섬김. 양아들로 들어가 섬기는 부모

나. 事親( ) : 어버이를 섬김

다. 出入( ) : 나가고 들어 옴

3. 다음 □안에 해당하는 한자의 음을 쓰시오.

가. 큰 나라를 섬김 : 事大(□대)

나. 중요하고 큰 일 : 重大事(중대□)

다. 조심해서 공손히 섬김 : 恭敬(공□)

라. 가깝고 밀접함 : 親密(□밀)

4. 다음 □속에 한자의 음을 써 넣고, 큰 소리로 여러 번 읽어 보시오.

가. 父母衣服(□□□□)을 勿踰勿踐(물유물천)하라 : 부모님의 의복을 넘어 다니거나 밟지 말라.

나. 父母有疾(□□□질)이어시든 憂而謨瘳(우이모추)하라 : 부모에게 병환이 있으면 근심하고 낫게 할 것을 꾀하라.

다. 父母出入(□□□□)이어시든 每必起立(매필기립)하라 : 부모님께서 출입하시거든 그때마다 반드시 일어나라.

라. 父母使我(□□사□)어시든 勿逆勿怠(물역물태)하라 : 부모님께서 내게 시키시거든 거스르지 말고 게으르게 하지 말라.

관련된 이야기

孝子와 호랑이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숯을 구워 팔아 홀어머니를 잘 모시는 孝子 총각이 살았대요.

하루는 총각이 숯을 팔러 장에 갔다가 너무 늦고 말았어. 깊은 산 고개를 넘어 집으로 오는데 그만 호랑이를 만났지 않겠어?

"호랑이야, 날 잡아 먹더라도 조금만 참았다가 잡아먹으렴. 집에 계시는 어머니께 이 고기와 옷을 갖다 드리고 하직 인사라도 하게 해줘."

그러나 호랑이는 등을 보이며 올라타라는 시늉을 했어. 호랑이 등에 올라타니 눈 깜짝 할 사이에 집에 도착했지.

"어머니 혹시 제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내일 아침 고개 너머 친척집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밥 굶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깃국과 밥을 지어 드리고 하직 인사를 했어. 그리고는 도로 밖으로 나오니 글쎄 호랑이가 사라지고 없었어. 며칠이 지나 또 숯을 구워 장에 내다 팔고 저녁 늦게 돌아오는데, 고개 마루에서 그 호랑이를 또 만났어.

"며칠 전에는 날 봐 주었는데, 이제 날 잡아 먹으렴."

이렇게 말하자 이번에도 또 등을 돌리며 올라타라는 시늉을 했어. 올라탔더니 눈 깜짝 할 사이에 집에 데려다 주었지. 이렇게 해서 호랑이는 매번 총각을 태어다 주어 親하게 되었어.

그런데 어느 날 고개를 넘어오는데 호랑이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호랑이가 사람들이 판 구덩이에 빠져 으르렁 거리고 있었어. 워낙 사나워서 사람들이 손도 못대로 쳐다만 보고 있었지. 총각이 이 호랑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사람들은

"며칠 동안 내버려 두면 굶어 죽을 터이니, 그 때 가서 잡지요."

그러자 총각은 그 동안 숯을 팔아서 모아 둔 돈을 주고 호랑이를 사서 구덩이에서 꺼내 주었어. 그 뒤로도 호랑이는 총각을 태우고 다녔는데, 어머니가 먹고 싶은 홍시나 산딸기나 밤이나 송이버섯이 있는 곳으로 태워다 주었어. 호랑이도 孝子노릇을 한 거지.

관련 인성 가치	효도

6. 내가 집안의 어른이라면

무릇 집안의 어른으로서 집에 거처할 때는 삼가 禮法(예법)을 지켜서 아내와 자식과 집안 식구들을 거느려야 한다.

食口(식구)들에게 역할을 나누어 일을 맡기고, 일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재물의 씀씀이를 절약하게 하고, 收入(수입)을 생각해서 支出(지출)*하며, 재물의 많고 적은 것에 맞추어 옷과 飮食을 마련하며 家庭(가정)의 크고 작은 행사에 비용을 댄다. 모두 하나같이 격식*과 禮法(예법)에 맞게 하되,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사치와 낭비를 금지하여, 만약의 비상시를 대비해 재물을 남겨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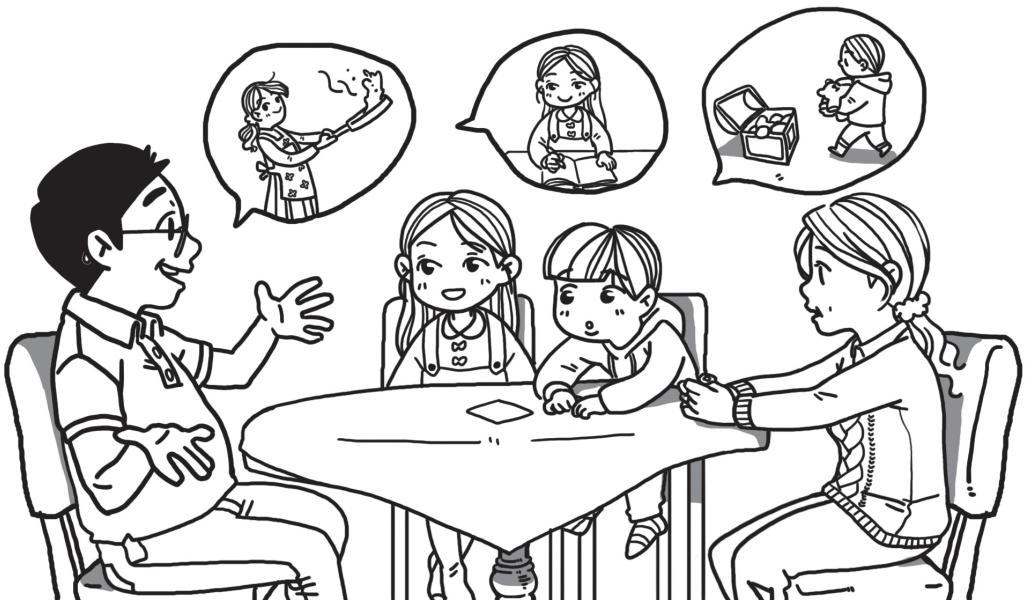
君子(군자)*는 道理(도리)*를 근심할 것이요 가난을 근심해서는 안 된다. 만약 집이 가난하여 살아갈 수가 없으면, 비록 가난을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더라도, 재물을 많이 쌓아 두고 잘 사는 큰 부자가 되기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배우는 자는 富貴(부귀)를 가벼이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만약 가난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 義로운 일을 행할 수 없다면 學問(학문)은 어디에 쓰겠는가? 무릇 물건을 주고받을 때에는 반드시 義로운지 義롭지 않은지 생각해서 받든지 말든지 해야지, 털끝만큼이라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격몽요결』「거가장」)

*收入(수입)과 支出(지출) : 수입은 돈이나 재물을 벌어들이는 것이고 지출을 그것들을 쓰는 것
*격식 : 때와 상황에 맞는 일정한 방식
*君子(군자) : 덕을 닦아 인격을 완성한 사람
*道理(도리) :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길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집안 어른의 역할



가족들의 역할을 정해준다

재물의 사용을 지휘한다

비상시를 위해 재물을 절약한다

의롭게 주고받는다

본문 해설

『격몽요결』의 이 내용에 대해서 요즘 어린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모두 성공해서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또 일부 어른들은 그렇게 성공하라고 가르치기도 하지요.

또 집안의 어른으로서 자식들을 거느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아내를 거느린다는 말도 그렇고, '도리(도덕)를 근심해야지 가난을 근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그러하거니와 큰 부자는 물론이요, '배우는 자는 富貴(부귀)를 가벼이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은 더욱 그러할 것 같아요.

이런 율곡 선생의 말을 이해하려면 좀 어려운 말로 당시 조선 중기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사실 어떤 글이든 작품이든 그것이 만들어질 당시의 배경을 갖고 있거든요.

율곡 선생이 이 책을 쓸 당시 선비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철학이 있었는데, 그것을 性理學(성리학)이라고 불러요. 성리학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말할 수는 없고, 간단히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어 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인간답게 사느냐 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었어요. 바로 孔子(공자)와 孟子(맹자)의 생각을 이어 중국 남송 때 朱子(주자)라는 분이 완성한 학문이지요.

율곡 선생은 이 성리학을 더 발전시킨 분인데, 이렇게 사람이 예법에 맞게 검소하게 살면서 재물에 욕심내지 말고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특별히 君子(군자: 덕을 쌓아 인격을 완성한 사람)가 되려고 학문하려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선생은 일찍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개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선조임금께 자주 올렸는데, 이것은 백성들이 부유하게 잘 살기 위해서였어요. 백성들이 재물을 멀리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가벼이 여기라는 뜻이 결코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도 안심하고 부자가 되어도 좋아요. 다만 부자로서 덕과 인격을 쌓아 남의 존경을 받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에요.

생각해 볼 문제

1. 우리 집에서 다음의 역할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람을 써 보시오.

   가. 가정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람 :

   나. 가정에 필요한 돈을 관리하는 사람 :

   다. 식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 :

   라. 집안의 청소를 맡은 사람 :

   마. 빨래와 설거지를 자주하는 사람 :

2.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가정의 중요한 일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 )

   ①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

   ② 아내와 함께 의논하여 결정한다.

   ③ 가족회의를 열어 모두의 의견을 참고하여 아내와 의논해서 결정한다.

   ④ 아내가 하자는 대로 결정한다.

3. 누가 내게 까닭 없이 선물을 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① 즐거운 마음으로 받는다.

   ② 까닭을 알아보고 의롭지 않으면 정중하게 거절한다.

   ③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마지못해 받는다.

   ④ 작은 선물이라면 받아도 괜찮다.

4. 옛사람들은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고 신분이 귀하게 되는 것보다 도리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여러분은 도리를 지키는 것과 부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가. 선택한 것 :

   나. 그 까닭 :

한자·한문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재물	물건	가난할	집	부유할	귀할
한자	財	物	貧	家	富	貴
음	재	물	빈	가	부	귀

2. 한자어의 음과 뜻을 알아봅시다. ( ) 속에 알맞은 음을 써 보세요.

가. 財物( ) : 돈이나 그 밖의 값나가는 물건

나. 貧富( ) : 가난함과 부유함

다. 富貴( ) : 재산이 넉넉하고 지위가 높음

3. 다음 서로 반대되는 뜻을 가진 한자를 줄로 이으시오.

(1) 貧 ● ● 入

(2) 出 ● ● 富

(3) 長 ● ● 幼

4. 다음 한자어를 읽어 보세요.

家長( ) 親家( )

5. 다음 □ 속에 한자의 음을 써 넣고, 큰 소리로 여러 번 읽어 보시오.

가. 君子憂道(군□우□)요 不當憂貧(부당우□)이니라 : 군자는 도리를 근심할 것이요 가난을 근심해서는 안 된다.

나. 君子(군□)는 富貴不能動其心(□□불능동기심)이라 : 군자는 부귀가 그 마음을 흔들 수 없다.

방공의 유산

『소학』에 나오는 옛 이야기예요.

옛날 중국 한 나라 때 방공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는 벼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안에 들어가 살지 않고 시골에서 아내와 함께 농사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방공의 夫婦는 서로 손님처럼 공경하였어요.

하루는 형주라는 지방에서 자사의 벼슬을 맡고 있는 유표라는 사람이 그를 찾아 왔어요. 아마 작은 벼슬자리라도 주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마침 그 때 방공은 밭두둑 위에서 밭 갈던 일을 멈추고 그를 맞이하였고, 그의 아내는 그 앞에서 묵묵히 김을 매고 있었어요.

그때 유표가 방공에게 말했어요.

"선생께서 고생스럽게 시골에 살면서 관직과 녹봉(관리에게 주는 봉급)을 좋아하지 않으시니, 이 다음에 무엇을 子孫에게 물려주시렵니까?"

이렇게 말하니, 방공이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모두 위태로운 것을 자손에게 물려주지만, 이제 나는 홀로 안전한 것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비록 물려주는 것이 남과 다르지만, 물려줄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니, 유표가 탄식하며 가버렸어요.

관직이나 녹봉은 사람마다 탐하고 바라는 것이니 경쟁의 대상이 되고 책임이 따르게 되므로 위태로운 것이에요. 옛날에는 관직생활을 잘못하다간 목숨이 위태로울 때가 많았지요. 그러나 농사일은 부지런히 일하기만 하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마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러니 방공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나친 욕심보다는 사람의 도리를 지키며 차라리 농사지으며 사는 것이 참된 행복으로 여겼지요.

관련 인성 가치	책임 정직

7. 내 자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자식을 낳아 가르칠 때에는 약간의 지식이 생길 때부터 착한 일로 인도해야 한다. 만약 어릴 때 가르치지 않고서 자라게 되면, 커서 나쁜 것을 익히고 放心(방심)*하게 되어 가르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가르치는 차례는 마땅히 『소학』*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

대체로 볼 때 한 가정 안에서 禮法(예법)을 잘 지키고 책이나 편지글이나 붓이나 먹 같은 물건 외에 잡다한 오락기구나 노는 것이 없으면, 子弟들 또한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쏟는 잘못이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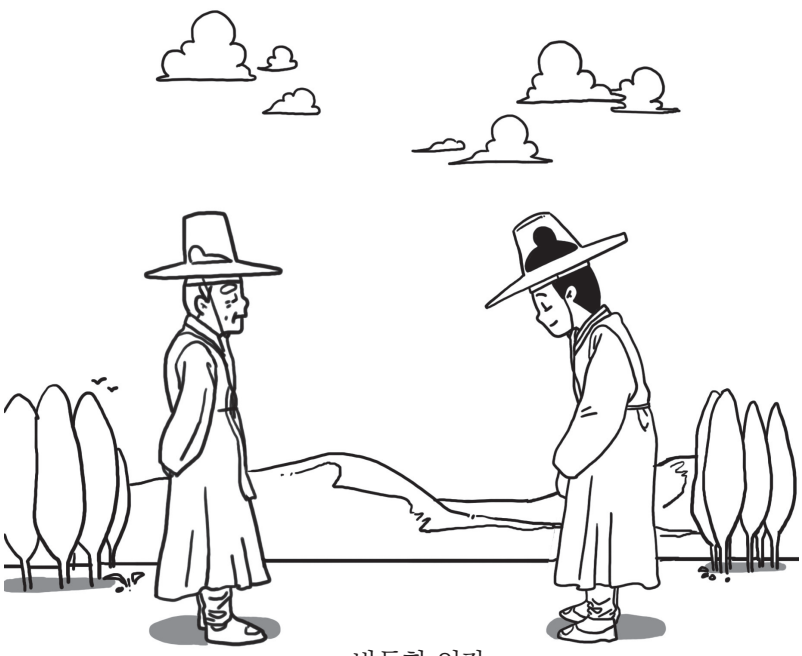
兄弟의 자식은 내 자식과 같으니 내 자식과 똑같이 사랑하고 가르치며,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격몽요결』「거가장」)

*放心(방심) : 마음을 놓아버림 *小學(소학) : 옛날 어린이들이 학문을 시작하는 기초 교과서.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어릴때의 가정 교육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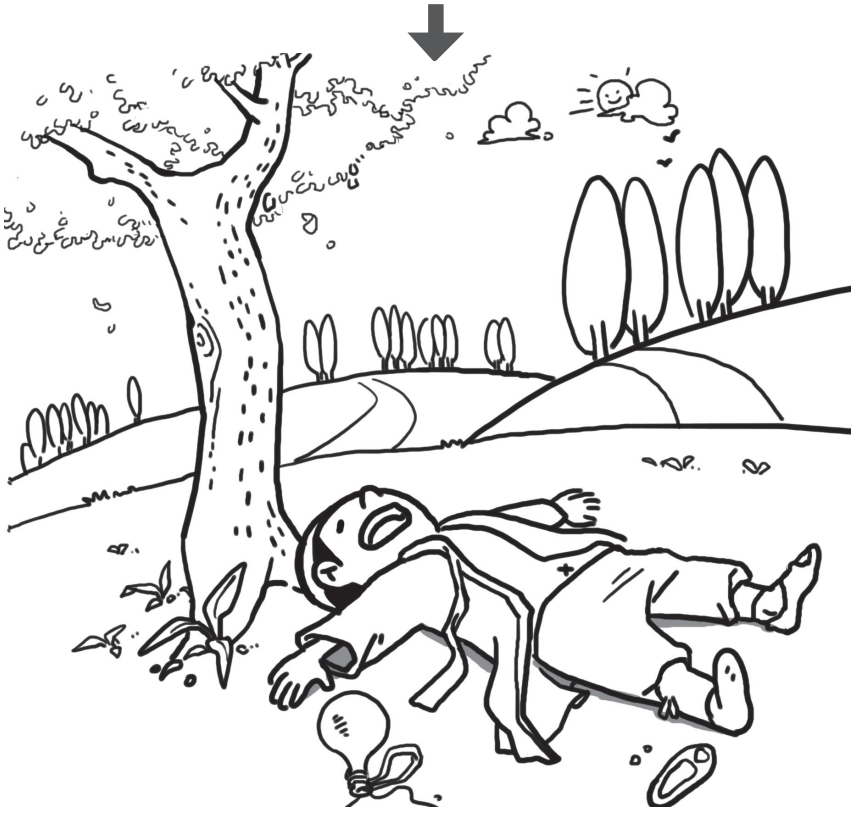
예절을 지키며 잘 배움



반듯한 인간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놀기만 하고 배우지 못함



무례한 인간

본문 해설

자식 교육도 당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父母님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잘 교육시키는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을 찾을 수는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육하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당연히 교육은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父母는 자기 子女를 책임지고 가르쳐야 해요.

물론 그 가르치는 내용이 영어나 수학 같은 교과목이 아니라 人間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예절과 생활에 관계되는 일이에요. 우리말에 '세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말이 있지요? 어렸을 때 집안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않으면, 학교에 와서 배워도 그 잘못된 버릇을 고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무섭지 않나요?

그럼 옛 父母들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물론 예부터 관습으로 전해오는 것도 있었겠지만, 율곡 선생은 『소학』을 소개하고 있네요. 소학에는 앞에 잠시 소개했던 성리학을 완성한 남송의 朱子(주자)라는 분이 제자에게 시켜 편찬한 책이에요. 거기에는 어린이들이 지켜야할 기본적인 여러 가지 예절이 들어 있지요. 물론 율곡 선생만이 아니라 조선시대 많은 선비들이 『소학』을 배웠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소학』에 나오는 옛 이야기 몇 가지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꼭 해당 아이의 父母만 가르친 것은 아니었나 봐요. 당시는 대가족제도(할아버지 밑으로 여러 子孫들이 같이 모여 사는 것)였으니까, 자기 父母가 아니라도 큰아버지나 작은 아버지가 가르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兄弟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똑같이 사랑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했어요.

재미있는 점은 집안에 오락하는 기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도 컴퓨터 오락이나 오락기에 빠지는 것을 父母들이 싫어하지요. 옛날에 오락기는 없었으나 오락으로 노는 윷·장기 등의 놀잇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볼 문제

1.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장소는 누구이며 어디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 해 보세요.

학교	학원	부모님	할아버지와 할머니	교회	성당	절	향교	기타

2. "만약 어릴 때 가르치지 않고서 자라게 되면, 커서 나쁜 것을 익히고 방심하게 되어 가르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라는 말을 잘 나타낸 속담을 골라보시오. ( )

①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을 쥐가 듣는다.

② 세 살 버릇 여든 살까지 간다.

③ 아니 때 굴뚝에 연기 날까?

④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3. 내가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거나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있는 대로 골라 써 보세요. (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학교 선생님 ④ 할아버지와 할머니 ⑤ 기타

4.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야단치거나 꾸중하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싫어합니다. 그런데 속담에는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으로 교훈으로 삼을 경우 만약 내게 야단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 )

① 이후로는 어색해서 그 사람을 미리 피해버린다.

② 고맙게 생각하고 잘 따른다.

③ 잔소리를 할 것 같아 그 사람 앞에서는 착한 척한다.

④ 원망스럽고 분하지만 일단은 참는다.

한자·한문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가벼울	무거울	두터울	엷을	착할	배울
한자	輕	重	厚	薄	善	學
음	경	중	후	박	선	학

2. 한자어의 음과 뜻을 알아봅시다. ( ) 속에 알맞은 음을 써 보세요.

가. 輕重( ) : 가볍고 무거움

나. 厚薄( ) : 두텁고 얇음

3. 다음 서로 반대되는 뜻을 가진 한자를 줄로 이으시오.

(1) 輕 ● ● 學

(2) 薄 ● ● 厚

(3) 教 ● ● 重

4. 다음 한자어를 읽어 보세요.

學生( ) 親善( )

5. 다음 고사성어의 음에 해당하는 말을 □안에 써 넣으시오.

善男善女(□남□녀) : 착한 남자와 착한 여자 곧 착한 사람들의 뜻이었으나 보통사람의 뜻으로 쓰임

6. 다음 □ 속에 한자의 음을 써 넣고, 큰 소리로 여러 번 읽어 보시오.

兄弟之子(□□지□)는 猶我子也(유□□야)니라 : 형제의 자식은 나의 자식과 같다.

관련된 이야기

소광의 자식 교육

『소학』에 나오는 옛 이야기에요.

옛날 중국 전한 때의 소광이라는 사람은 태자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는데, 얼마 뒤 벼슬을 그만두고 시골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황제께 여쭈었어요. 황제가 그것을 허락하면서 黃金 20근을 내리고, 태자도 50근을 내려주었지요.

소광은 고향인 시골로 돌아와 술과 飮食을 마련하여 하루가 멀다시피 친척과 친구들과 손님들을 초청하여 즐겼어요. 그리고는 집안의 살림을 맡은 사람에게 아직 金이 몇 근 남았냐고 자주 물었지요.

일 년이 지나자 소광의 자식은 아버지와 가까운 노인을 찾아가 부탁했어요. 財物을 막 쓰지 마시고 집이나 농토(농사짓는 땅)를 사게 해 달라고 자식들을 대신해서 말해 달라는 거였어요.

한가한 틈을 타서 그 노인이 그 말을 전하자 소광이 말했어요.

"내 어찌 늙고 망령이 들어서 자식을 생각하지 않겠는가? 내 집에는 예부터 물려 받은 농토와 농가(농사지으면서 사는 집)가 있어서, 자식들이 부지런히 농사를 짓는다면 남들처럼 먹고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네. 이제 그것을 더 사주어 풍족하게 해준다면, 그것은 자식들에게 게으름을 가르쳐 줄 뿐이네. 현명하면서 財物이 많으면 높은 꿈(이상)이 손상을 입고, 어리석으면서 財物이 많으면 잘못만 늘어나게 되네. 더구나 부유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여 미워하는 것인데, 내 어찌 그 잘못을 늘어나게 하고 남의 원망을 사게 만들겠는가?"

소광은 정말로 자식을 위하는 책임 있는 사람 같아요. 옛말에 "자식에게 黃金 한 바구니를 물려주는 것보다, 책 한 권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있는데, 참으로 지혜로운 자식 교육 방법이라 생각돼요.

요즘은 자식이 해 달라는 대로 해주고, 유산을 많이 남겨 주는 것을 자식 사랑으로만 알고 있는 父母들이 있는데, 그것이 혹 자식을 망치게 하는 일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관련 인성 가치	책임

인성교육과 한자·한문공부를 위한

새로 쓴 격몽요결 上 자연과 가족

73140
9 791195 682300
ISBN 979-11-956823-0-0

율곡연구원 율곡학 콘텐츠 개발 및 사회적·국제적 확산 사업단